여연정책보고서 2015-06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

노명순 연구위원

2015. 3

YDI
Policy Report

여의도연구원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

2015. 3

연구책임자 노명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안선회 (중부대학교)

〈 요 약 〉

○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달성(OECD)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

- 그러나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입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몰두하면서 21세기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음

- 이 문제는 교육받는 개개인의 행복과 역량 함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위해요소

○ 지금은 지식(knowledge)에서 창조성(creativity)으로 시대의 패러다임 이동하는 '창의성의 시대'

-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창조경제'로 표현하고 있으나 창의성은 정권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미래사회의 패러다임

- 따라서 '창의성'이라는 시대정신과 미래의 삶에 부합되는 교육의 변화 절실

- 즉,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양성을 통해 '모방을 통한 성장'을 달성했던 것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갖춘 '시장 선도자(First Mover)' 양성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입제도 연구

-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제도가 초중고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의 교육개혁보다 우선적 접근 필요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모든 교육문제의 시작이자 종착지인 대입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주요 선진국의 대입제도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대입의 주요 3대 기능인 적격자 선발, 초중고 교육과의 연계, 교육기회보장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 개선안을 제시함

○ 본 연구결과, 새로운 대입제도는 '창의성의 시대' 필요한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미래형 인재선발·양성에 적합한 대입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

- 먼저, 대입제도의 주요 전형요소의 변화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지금의 교과지식측정 위주의 수능이 창의성 등 미래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환, 대학별 논술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공동논술로 대체, 내신평가 개선, 학생맞춤형전형 도입을 제안함

-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여러 교육문제와 사회현상이 중첩되어 있는 대입제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진로기반 진학지도 강화, 교육개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취업·승진 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 확립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차 례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Ⅱ. 우리나라 교육과 대입제도 진단 ····· 7

1.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 9

2.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원인 ····· 21

3. 대입제도 현황 ····· 25

4.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 분석 ····· 38

Ⅲ. 해외 사례 ····· 45

1. 대학입학전형의 개요 ····· 47

2. 대입 주요 전형요소와 전형 방법 ····· 56

3. 적격자 선발 ····· 71

4. 초중고 교육방향 설정 ····· 83

5. 교육기회보장 ····· 93

6. 소결 ····· 102

Ⅳ. 대입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 107

1. 미래 인재상과 대입제도 ····· 109

2. 대입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 110

3. 대입제도의 비전과 목표 ····· 112

Ⅴ. 대입제도 개선방안 ····· 113

1. 전형요소의 개선 ····· 115

2.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 126

참고문헌 ····· 129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달성(OECD)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

○ 그러나 우리의 교육이 여전히 학업성취도 향상에 몰두하면서 21세기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입, 높은 청년 실업률 등 환경적 변화 급격

- 21세기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19세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듯 지금의 교육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전문가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부문은 교육이라고 지적(동아일보, 2014.12.1.)

○ 여전히 과거형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함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목적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단어, 공식,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 중시.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역량과 사고력보다는 인지적 능력 중심 교육

- 대학교육에서도 학생의 창의적 관점보다는 교수의 견해대로 과제와 시험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 좋은 성적 취득(이혜정, 2014)

- 신입사원 선발에서도 업무적 필요와 상관없이 높은 영어성적은 필수

-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은 암기위주의 반복학습에 능한 학생을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구조로, 모방과 추격에 능한 인재양성에 적합

○ 이 문제는 교육받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와 역량 함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위해요소

- 높은 학업성취도와 달리 우리나라 학생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교과흥미도, 낮은 내적 동기, 문제해결에 대한 낮은 자신감, 비합리적인 진로선택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적중심의 교육과 학생선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금은 산업화사회와 지식기반사회를 넘어 '창의성 시대'로 이동 중

- 지식(knowledge)에서 창조성(creativity)으로 시대의 패러다임 이동하는 창의성의 시대 도래

- 이러한 변화를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1]로 표현하고 있으나 창의성(창조, 창발)은 정권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미래사회의 패러다임

○ 따라서 '창의성'이라는 시대정신과 미래의 삶에 부합되는 교육의 변화 절실

- 창조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창의성 시대의 가장 핵심요소인 미래인재 또한 창조적인 인재양성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적어도 정책으로 제공되는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해야 함

- 즉,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양성을 통해 '모방을 통한 성장'을 달성했던 것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갖춘 '시장 선도자(First Mover)' 양성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먼저 교육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입제도를 연구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실상, 대입이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여 일제히 정렬되어 있는 구조. 따라서 유·초·중·고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가장 효과적 접근

- 우리나라는 대입제도가 하급학교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특수한 교육현실에 있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를 보는 것에 유리한 전략

---

1)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1990년 정보화 사회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창조화라는 제4의 물결이 도래할 것을 예견하며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나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개발계획의 'Creative Economy' 2010)에서 제시한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한 진화론적 개념으로 창조적 자산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가장 포괄적

- 즉,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제도가 초중고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좌우하기 때문에, 대입제도가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초중고 학교교육의 질적 전환 가능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 첫째,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그 원인 분석,

- 둘째, 우리나라 대입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셋째, 우리의 고민을 앞서 해왔던 선진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 넷째,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대입제도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형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대입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교육과 대입제도 진단

1.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1) 창의성을 기르지 못하는 주입식 · 암기식 교육

○ 창의성 함양은 미래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능력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역량

- 창의성은 개인이나 국가는 물론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질이기 때문

- 우리나라도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슬로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 교육

- 교육과정상 인문계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고2부터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편성

-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전교생에게 적용함으로 고등학교 수업과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진로)과의 연계 곤란

- 예컨대, 물리를 배우지 않고 공대 진학, 수학을 잘하면 영문과 합격에 유리, 독일어를 배우고 싶지만 일어를 배우는 등의 현상 발생(심정민, 2013)

○ 대입은 지식보다 사고력을 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 독해력, 추론능력, 논증 등을 주요 대학의 논술과 면접 등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는 여전히 단답식·객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중

- 예컨대, 초중고에서 임진왜란을 배우면서 난중일기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수능에는 난중일기 원문 발췌(심정민, 2013)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좋은 학교란 좋은 상급학교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

- 지금의 성적위주 교육체제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제된 분위기에서 주입, 암기, 반복을 지속하는 것. 문제는 입시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방법이 창의성 함양에는 부적절함

- 우리나라 교육체제 자체가 창의성 함양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변경되어야 함

- 상대평가에 따른 내신과 수능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창의성과 융합을 위한 탐구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은 불가능

○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필요

-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가공하고 엮어서 지식을 구성하는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함

- 피터즈(R.S. Peters)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인지적 관점(cognitive perspective)을 형성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관점'보다는 '정답'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인지적 관점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교사나 학생에 대한 지나친 요구임

2) 꿈과 끼를 살리지 못하는 불행교육

○ 학교교육에서 학생 자신에 대한 탐색·고민의 시간과 계기 부족

- 학생은 자기만의 꿈, 진로와 적성, 능력을 찾아 기르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 준비에 매몰

- 학생이 지닌 진정한 재능을 확인할 기회를 학교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배우려는 사람의 재능·관심과 교육이 결합될 때 개개인의 역량과 행복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음

○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나라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49.7%로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학생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통계청, 2014)

- 특히 학교교육에 의한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만족도는 35.8%로 학교생활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음(통계청, 2014)

<표 1> 학생[1]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인 학교생활(2012년)	100.0	46.7	10.5	36.2	45.8	7.5	6.3	1.2
전반적인 학교생활(2014년)	100.0	49.7	13.2	36.6	43.8	6.4	5.5	1.0
<학교 생활 부문>								
교육내용	100.0	47.7	11.5	36.2	42.5	9.8	7.8	2.0
교우관계	100.0	69.5	27.9	41.5	26.8	3.8	2.9	0.9
교사(교수)와의 관계	100.0	50.8	15.8	35.0	42.1	7.1	5.9	1.1
학교 시설 및 설비	100.0	38.7	10.2	28.5	43.3	18.0	14.1	3.9
학교 주변 환경	100.0	37.5	10.4	27.1	44.7	17.7	13.8	4.0
소질과 적성개발[2]	100.0	35.8	9.5	26.3	45.6	18.7	13.7	5.0
전공[3]	100.0	40.6	11.4	29.2	45.8	13.6	10.4	3.2

주: 1) 재학생임
2) 2014년 신규 추가 항목임
3) 중학생 및 인문계 고등학생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

○ 낮은 학습효율도

- OECD 국가 대비 학업성취도는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학생은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시간, 낮은 학업흥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핀란드 등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학습효율도는 매우 낮은 편

○ 청소년 행복지수 OECD 최하위

-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공개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이하 행복지수)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평균(100)을 기준으로 6년째 꼴찌(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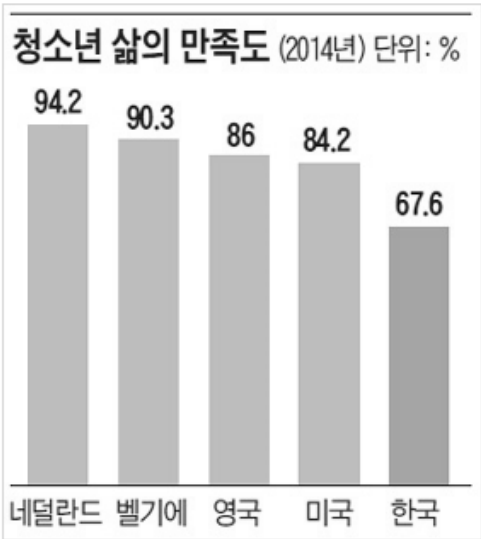
- 우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OECD 국가 평균(85.8%)보다 크게 낮음

- '가정 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청소년은 13%(OECD 평균 6.7%), '외롭다고 느낀다'는 청소년은 18%(OECD 평균 7.4%)로 OECD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음

-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압박'(23.3%)과 '학습 부담'(20.8%) 등을 가장 많이 꼽고 있음

- 회원국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94.2점, 한국보다 윗 등수인 루마니아도 76.6점으로 우리와 16점 이상 차이

[그림 1] 청소년 삶의 만족도



출처: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4)

○ 우리나라 학생이 불행을 느끼는 원인

-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2위.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학교성적에 대한 비관(35%)이 가장 높음

※ 2001년 15세~19세 10만명당 자살률은 3.19명에서 2012년 8.2명으로 2.5배 이상 증가

3) 빈약한 인성교육

○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식·주입식 위주 교육에 따라 인성과 도덕성 교육은 소홀

- 학습의 목표는 1등급인 상위 4%에 들어가기 위한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귀결

- 대입이라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학교풍토와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은 인성교육보다는 성적으로 평가받게 되고, 대학에서도 수능성적과 내신 등의 점수로 위주로 학생 평가

- 이로 인해 수능에서 평가하지 않는 과목시간은 학교 재량껏 축소하거나 아니면 학생 스스로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등 수업의 파행과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금 시대에 맞게 인성교육의 개념 정립 필요

- 과거처럼 개인의 내면적 수양에 초점을 둔 도덕교육이 아니라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역량 함양

- 협동과 배려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실천 역량을 가르쳐야 함

4) 지나친 사교육 부담

□ 가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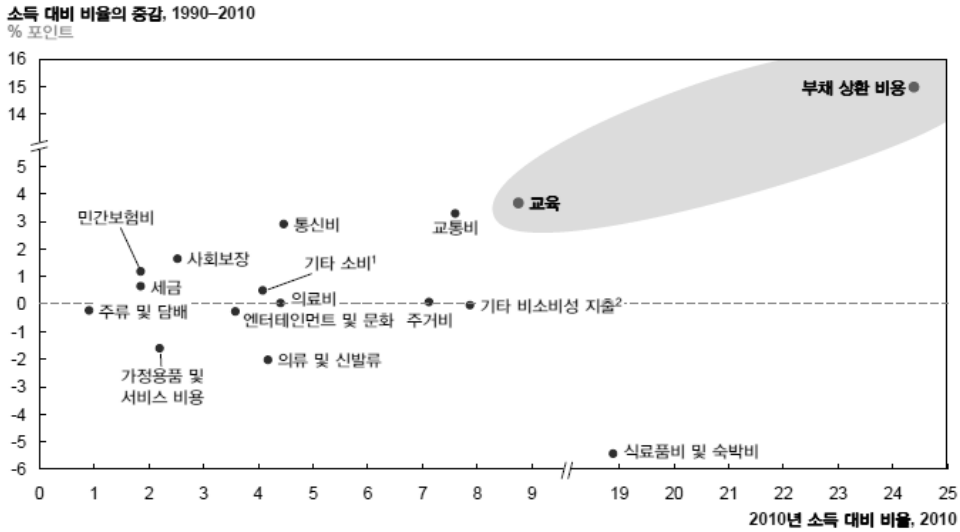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6.7%로 미국(2.4%), 영국(1.5%), 독일(1.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OECD)

○ 교육비 지출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 소득분위 상위 40~60%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채 상환 비용과 교육비가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맥킨지 보고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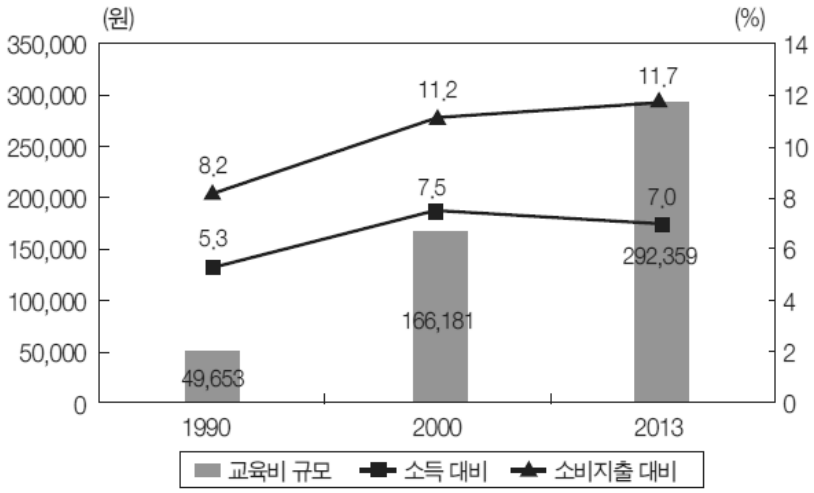
[그림 2] 가계지출 대비 지출 패턴



주: 1) 이미용 서비스 및 용품, 시계 및 장신구 등
2)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자료: 통계청,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 분석

-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0년 7.5%, 2011년 7.8%로 늘어났고,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3%에서 2000년 11.2%, 2011년 12.6%로 상승

[그림 3] 도시 2인 이상 가구 교육비 지출 추이(명목기준)



주: 1990년과 2000년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통계청에 의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자료만 제공되어 2013년도의 경우도 도시 2인 이상 통계사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Meta, 통계청.

- 이처럼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응답자의 69.3%로 매우 높은 편(통계청, 2014)

-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보충 교육비' 즉,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62.6%)으로 나타남

<표> 교육비 부담요인 (30세 이상)

(단위: %)

	계[1]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학원비 등)	교재비 (책값 등)	하숙, 자취, 기숙사비	기타
2012년	100.0	30.8	64.5	1.3	3.2	0.1
2014년	100.0	31.6	62.6	1.1	4.3	0.4
30~39세	100.0	7.5	89.9	2.1	0.5	-
40~49세	100.0	20.0	76.0	1.1	2.5	0.4
50~59세	100.0	55.6	34.9	0.8	8.2	0.5
60세이상	100.0	63.4	25.7	1.5	9.3	-

주: 1)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중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자임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

□ 교육비 지출의 대다수는 사교육비

○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사교육비 총액은 줄어드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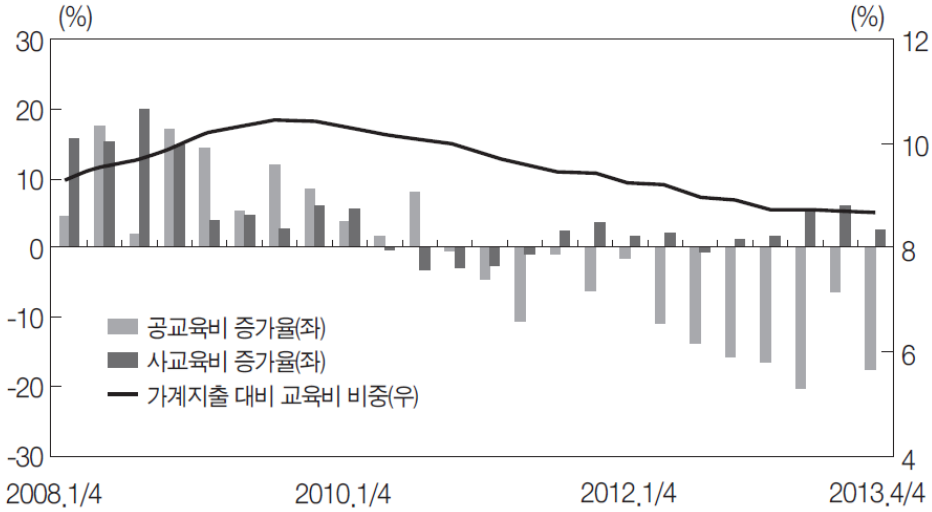
- 2013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억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2009~2013년 동안 연평균 3.7% 감소

○ 그러나 여전히 교육비 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교육비가 차지

- 2013년 기준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이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평균을 내면 1인당 34만7000원으로 상승하며, 도심지역 학생의 사교육비로만 추산할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남

- 2013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가계 소비지출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편

[그림 4] 가구당 가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공교육비, 사교육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 1) 공교육비는 정규교육비, 사교육비는 성인 및 영·유아, 초·중·고 학생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 이는 사교육비가 중산층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표 2> 1년 후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구의 주된 원인

부채원인 / 부채규모	전체	거주 주택	거주 주택외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상환	결혼 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기타
부채업는 가구	100.0	25.2	3.2	17.6	0.0	7.3	6.8	15.0	18.2	6.6
부채있는 가구	100.0	12.6	3.2	5.8	18.3	3.0	4.9	26.3	20.4	5.8
전체	100.0	14.9	3.2	7.9	15.0	3.8	5.2	24.3	20.0	5.9

주: 2010. 2월말 기준

출처: 2010 가계금융조사. 한국은행

□ **에듀푸어(교육빈곤층) 양산은 사회경제적 파급 심각** (현대경제연구원, 2011)

○ 에듀푸어(교육빈곤층) 현황

- 에듀푸어란 부채가 있고 가계가 적자상태인데도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가구

- 약 824,000 가구, 305만명으로 추정하며,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32.6만 가구의 13%에 해당

- 에듀푸어 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속도가 교육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확산되는 양상

○ 에듀푸어의 특징

- 교육빈곤층은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교육비 지출.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교육비는 소비지출의 18.1%인데 교육빈곤층은 소비지출의 28.5%를 자녀 교육비로 사용

- 중고등학생을 둔 교육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큼. 이들은 전체 교육비의 85.6%를 사교육에 지출

- 교육빈곤층은 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아 소득의 22%인 월평균 685,000원의 가계수지 적자 발생

-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부분의 소비는 대부분 평균 이하로 지출

- 교육빈곤층 가구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대졸 이상, 40대,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261,000 가구(102.9만명)로 전체 교육빈곤층의 31.7% 차지

○ 에듀푸어의 심각성

- 에듀푸어 가구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와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 교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불균형적 소비는 생활을 기형적으로 만듦. 교육을 제외한 의식주 등 다른 분야의 소비는 모두 평균 이하로 줄어든 특수한 소비행태

- 교육비는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증가 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교육비 관련 부채규모는 2013년말 기준 28조 4000억원.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액수가 늘어난 폭보다 2배 이상 높음

□ 국가발전에 심각한 악영향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결국 가구 규모 감소 및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나아가 교육기회 불평등, 국민통합 저해

○ 창의적 인재 양성과 지금의 사교육은 양립 불가

-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개발할 시간과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 차단

5) 교육 불평등 심화

○ 지역간·계층간 학력격차 실태

-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가장 낮음

<표 3>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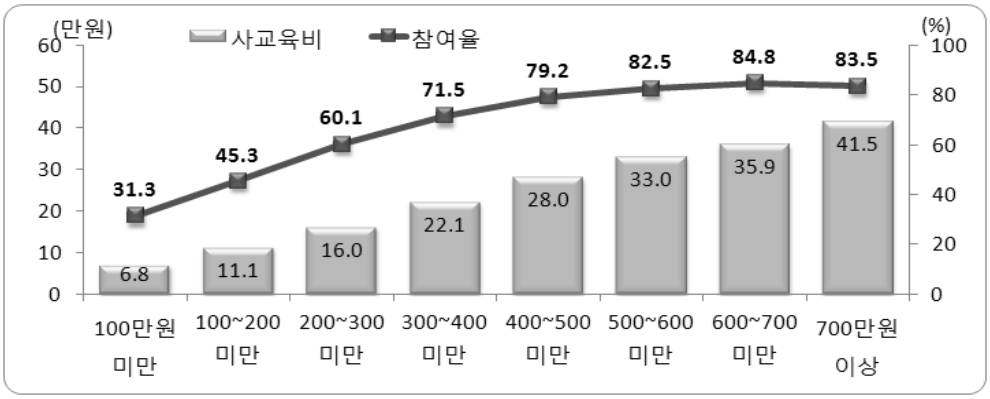
구 분	2012년	전년비(차)	2013년	전년비(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사교육비(만원, %)	23.6	-1.7	23.9	1.3	23.2	26.7	22.3	26.2
서 울	31.2	-4.9	32.8	5.1	28.4	34.9	37.1	42.7
광역시	23.0	3.1	23.3	1.3	22.0	26.5	22.1	26.6
중소도시*	23.4	-3.7	23.8	1.7	24.1	27.1	20.3	23.5
읍면지역	15.0	-6.3	14.7	-2.0	16.5	16.5	10.3	12.3
참 여 율(%, %p)	69.4	-2.3	68.8	-0.6	81.8	69.5	49.2	55.9
서 울	73.5	-3.5	75.0	1.5	84.8	74.7	61.6	68.4
광역시	70.8	-0.8	68.9	-1.9	80.3	70.5	51.3	59.7
중소도시	70.3	-2.1	70.2	-0.1	84.0	71.2	48.7	54.5
읍면지역	58.0	-6.0	57.5	-0.5	74.4	56.8	31.3	36.2

주) 중소도시 :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市의 洞지역
자료: 20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4.2.27.)

- 소득계층간 교육양극화도 심각하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통계청(2014)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림 5]과 같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고 참여율도 높게 나타남

[그림 5]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2013년)



자료: 20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4.2.27.)

-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5천원이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만8천원으로 가구 소득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3.5%이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1.3%로 2배 이상 차이가 남

○ 지역간·계층간 학력격차 심화

- 지역간·계층간 학력격차는 대학교육 기회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연결

- 특히 불평등한 사교육비 지출을 매개로 계층간 대학교육기회의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 초래

- 문제는 사교육비 지출과 아이들의 성적 정비례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6,000원으로 하위 20%의 162,000원의 2배에 달함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역동성 약화

- 과거 우리나라 교육은 계층간 이동을 촉진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고착화

- 지금은 부모와 조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격차가 크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력격차와 소득격차까지 유발

- 즉, 교육이 경제력을 대물림하는 구조의 매개체 역할.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공정경쟁 훼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과 취업 격차는 개인의 고용기회 불평등을 낳기도 하지만 국가경제 전체로 봐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방해

- 계층이동성 저하는 인적자원 배분을 왜곡해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결국 경제성장동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음

-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의 경우 가정과 사회환경이 주는 열악함이나 문화자본의 측면에서 생겨난 태생적 한계,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교육의 성취 역시 매우 취약. 이러한 점은 학생이 속한 집단의 위계에 따라 교육의 성취가 결정된다는 '교육의 사회경제적 재생산' 개념을 확인시켜 줌(조영달, 2011).

2.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원인

1) 고착화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에 대한 국민의식 고착화

- 끊임없는 정부의 교육개혁 노력과 대입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고, 뒤이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 팽배

-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19~75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6.7%(1134명)가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 '학벌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31.9%(637명)를 차지. 반면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9.2%(183명)에 불과

- 또한 응답자의 91.0%(1821명)는 '대학 서열화 현상에 큰 변화는 없거나 (1,234명) 대학 서열화가 오히려 심화될 것(587명)'이라는 비관적 반응

○ 통계청 조사결과(2014),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46.7%)이나 학부모(46.9%)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임

<표 4>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

(단위: %)

	계[1]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	주위의 기대 때문	학력을 차별하는 분위기 때문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	기타
2014년	100.0	46.7	37.5	2.0	10.8	2.3	0.6
남자	100.0	47.9	37.5	1.8	9.8	2.3	0.7
여자	100.0	45.4	37.5	2.2	12.0	2.4	0.5

주: 1) '대학(교)(4년제 미만)' 이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임

<표 5> 부모의 자녀기대 교육목적(30세 이상)

(단위: %)

	계[1]	인격이나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해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능력과 소질 개발	결혼, 친구관계등 사회적 유리	부모가 받지 못한 교육 보상	기타
2014년	100.0	7.8	46.9	38.1	6.2	0.7	0.2
남자	100.0	8.4	46.2	37.6	6.7	0.8	0.3
여자	100.0	7.2	47.6	38.7	5.8	0.6	0.1

주: 1) 자녀를 '대학(교)(4년제 미만)' 이상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임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불필요한 교육경쟁 격화

- 강한 학벌주의로 인해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이 심화, 개개인의 특성을 키워주는 교육보다는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실시

- 대학서열 인식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학생선발의 다양화·특성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 저해

- 대학별로 학생선발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학간의 실질적인 차별화는 미흡한 실정

- 일부 상위권 대학의 경우 기존 서열구조에 안주하는 경향 존재

- 명문대 진학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과열경쟁이 일상화됨으로써 입시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을 사실상 결정. 특히, 극히 일부 학생이 지원하는 소수 상위권 대학의 전형에 따라 전체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획일화

○ 심각한 수준의 인력 수급 불균형

- 대기업 중심의 취업 준비 행태,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력과 산업체 요구간 불일치 문제 여전

- 학교급별로 보면 고졸 기능인력은 심각한 구인난에, 대졸 이상 고급인력은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부문 간의 인력 수급 불균형 심각

※ 신규취업자 직무불일치 비율('13, 노동연) : (전문대) 26.0%, (특성화고) 15.3%

○ 교육투자 대비 회수율 하락

-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주의의 영향으로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길이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와 다름. 대졸자의 평생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높은 사교육비 투자를 감안하면 사립대 졸업자가 57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소득 순현재가(NPV)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고졸 직장인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아 고교 졸업생 중 71%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맥킨지 보고서, 2013)

○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 '지방대학의 대학서열체제 순위 하락 → 입학자원의 감소 및 질적 하락 → 취업률 저하 → 지역인재 유출 → 지역경제 악화' 악순환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국가역량 감소

2) 시대에 맞지 않는 학교체제

○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부재(최상덕 외, 2012)

- 과도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여 공교육의 약화 초래

- 개별 학생의 관심 교과 이수 곤란하며 진로와 연계된 교과 선택 기회 제한, 선다형 점수 중심의 평가 실시

- 융통성없는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순발력과 다양성, 속도를 특기로 내세우는 학원교육에 밀릴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함양 방해

○ 교사의 교육력 부족과 학생의 학습력 빈곤(신현석 외, 2012)

-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지만, 교사의 교육력 신장을 유도·촉진·조장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 학업성취도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창조경제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자기주도력은 최하위 수준

○ 획일적인 교육평가

- 교사가 다르더라도 학년별 평가로 인해 동일한 과목의 수업과 평가에서는 교사의 자율권이 없음. 이는 교사가 계속해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수업만 하도록 함

○ 학교교육 이탈자, 학업중단자 급증

3) 미래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입제도

○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은 대학진학을 위한 시험점수와 석차 위주의 교육체제

- 명문대 진학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과열경쟁이 일상화됨으로써 입시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을 사실상 결정

- 특히, 극히 일부 학생이 지원하는 소수 상위권 대학의 전형에 따라 전체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획일화됨

- 과열화된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 확보수단으로 사교육이 만연

○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21세기형 인재양성이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 우리나라 또한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틀을 짜고 실천하는 일 시급

-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각급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 국가경쟁력 향상의 가장 핵심은 창의적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3. 대입제도 현황

1) 대입제도의 중요성

□ 학생선발체제의 의미

○ ‘학생선발체제’란, ‘학생 선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각급 학교, 학생·학부모가 일정한 선발규칙(형식, 시기,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학생선발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각 부분들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음

○ 선발은 모집을 한 후 응모한 후보자 중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활동

- 학생의 선발은 모집을 통해 학교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해당 학교의 인재상과 교육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활동

-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유지되고 더욱 향상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인재상과 교육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발되어야 하기에 선발 방법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해야 함. 모집을 해서 지원자가 모이면 그들 가운데서 보다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수단이 시험(신현석, 안선회 외, 2011, 일부 수정)

○ 따라서 학생선발 시험은 타당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갖추어야 함

- 선발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함. 일정한 교직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려고 입안한 시험이 그러한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였으면 타당성이 있음

- 선발시험의 신뢰성은 선발시험이 능력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 즉 측정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즉, 동일한 응시자가 동일한 시험을 시간과 장소 등 환경을 달리하여 반복 시행한 다음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의미함

- 선발시험의 객관성은 시험성적을 채점하는 데에서 채점자 개인의 편견이나 응시자의 성별, 정치성향, 학연, 지연 등 시험 외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은 공정성을 의미

- 선발 시험은 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험 방법을 다양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

□ **학생선발체제의 의의**

○ 진정한 교육이 “학습자의 학습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 지도, 관리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통한 행복 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자의 적극적인 활동”이라면, 이러한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선발체제 역시 올바른 교육의 일환이어야 함

○ 교육체제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을 여러 종류의 범주로 나누어 적절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직업세계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장재천, 2009: 175)

- 부, 권력, 위신, 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의 보유량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 여기서 교육은 이들 자원 중 주로 지식과 기능의 분배와 관련. 대부분의 지식과 기능이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이종각, 2013)

○ 즉, 학생선발체제는 “학습자의 학습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 지도, 관리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통한 행복 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적인 활동이자 교육적인 사회체제”가 되어야 함

□ **학생선발체제로서의 대입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안선회, 2013)

○ 사회적 선발 기제

- 개인적 : 전공선택을 통한 삶의 방향 결정, 고등교육기회 획득 과정, 사회계층적 지위와 역할에 접근과정

- 사회적 : 고등교육기회 배분, 사회계층적 지위와 역할 배분·할당하는 선발과정

○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고리(초중등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기제)

- 한국사회에서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개혁정책

-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거나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원인이자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함

○ 사교육의 증감과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기제

- 대입제도에 따라 사교육시장 변화 : 사교육 정도와 사교육의 양상(학력고사·내신, 수능, 논·구술 대비) 차이 유발

-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의 대응이 더 유연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대체로 대입제도의 변동 자체만으로도 사교육 증가 효과 발생

- 이러한 논리는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때에 따라 사교육대책에 대한 무책임과 무력감, 대입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 논리로 이용

○ 다른 사회·교육정책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핵심교육정책

- 평준화 정책(자사고, 특목고 등),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과 내용, 학생평가, 교원평가, 실업교육 등 여러 교육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 지식기반사회화 대응,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복지, 부동산가격 변동 등과 연계

- 대입제도는 사회 계층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핵심교육정책

-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여론의 주요 표적과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 결과 어느 교육정책보다 잦은 변화

○ 교육현장에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 '교육현장'이란 '올바르고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호작용 그 자체, 그리고 그 장소, 기관'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

- '교육현장'은 '교육현장 구성원 모두의 견해와 요구, 교육과 학습, 참여가 보장되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이자, 학습공동체'

- 학생선발체제로서의 대입제도는 고등학교의 교수-학습-평가-비교과활동만이 아니라, 초·중학교와 심지어 유아교육에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주며, 그 이후 대학에서의 학습과 직업세계로의 진입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

2) 주요 대입제도의 변화

가. 대입제도 변화의 역사

○ 대입제도 변화의 핵심 요인은 정치 변동

<표 6> 대입제도 변동과 정치변동

존속 학년도	개정의 의도	내용	문제점	정치변동
'45 ~ '53 (9년)		대학별입학시험(자율)	부정입학 문제	이승만정부
'54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입학연합고사 + 대학별 본고사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이중 부담	
'55 ~ '61 (7년)	실패한 연합고사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본고사 + 내신(권장)	학사부조리, 대학간 격차, 입시위주 교육	
'62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성적우수자 탈락 비인기대학 정원미달	'61. 5·16 군사정변 대입 국가개입 공식화
'63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효율성, 대학자율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 대학별 본고사	대학(학과)간 극심한 학력차	
'64 ~ '68 (5년)	실패한 국가고사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교육	'63 박정희정부
'69 ~ '72 (4년)	교육의 효율성 학사부조리 제거	대학입학예비고사 (자격시험) + 대학별 본고사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67 박정희재선
'73 ~ '80 (8년)	자격시험 부작용 시정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선 상존) + 본고사 + 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72 유신체제
'81	과열과외 해소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 (선시험) +내신 *졸업정원제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79 12·12사태
'82 ~ '85 (4년)	예비고사 개선 무의미한 합격선 폐지	대학입학학력고사 +내신 *졸업정원제	입시혼란, 적성무시 지원, 지식 중심 교육	'80 전두환정부 7·30 교육개혁
'86 ~ '87 (2년)	내신의 문제점 보완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 논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편중지원·미달, 논술 미흡, 지식 중심 교육	
'88 ~ '93 (6년)	선시험 부작용 시정 논술의 문제점 개선	대학입학학력고사 (선지원) + 내신 + 면접	대학의 선발기능 미흡, 면접의 기능 미흡	'88 노태우정부 '91 수능 도입

존속 학년도	개정의 의도	내용	문제점	정치변동
'94 ~ '96	학력고사 개선 대학자율	대학수학능력시험 + 내신 + 본고사	과열과외, 수능과 본고사 중복	'93 김영삼정부
'97 ~ '0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955·31 교육개혁
'02 ~ '07 (98년 발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 추천서 + 심층면접 등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98 김대중정부, 2002 대입제도
'08 ('04. 10월 발표)	내신 비중 확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학생부 비중 확대, 수능등급제, 선발 특성화·전문화(입학사정관 제 도입), 사회통합전형 확대	내신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 학생 3중부담, (죽음의 트라이앵글) 수능등급제 혼란	'03년 노무현정부 '04년, 2008 대입제도
'09 (교과부)	대입자율화	수능등급제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12 대입완전자율화	대입전형 복잡성 증대,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등 사교육비 증가	'09 이명박정부
'13 (교육부)	학생학부모 부담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학생부 반영 확대 수능 문이과통합 모색	*본 발제내용에 제시	'13 박근혜정부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 이후 내용 및 정치변동 내용 추가.

나. 2000년대 이후 정부별 대입제도 주요 특징

□ 김대중정부의 대입제도

○ 대입전형에서 성적비중 대폭 축소, 특기·활동·품성 등 다양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 정착

<표 7>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구분	기준	개선안 (2002학년도)
1. 경쟁률	• 1.4:1 내지 1.3:1	• 1:1 또는 0.9:1
2. 선발기준	• 시험성적	• 성적비중 대폭 축소. 특기·활동·품성 등 다양화
3. 선발방법	• 총점에 의한 석차화	• 석차화 억제, 다양한 선발방법
4. 고등학교	• 입시위주 준비기관	•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5. 학생부	• 국·공립 의무반영 • 성적위주 단매식 • 총점위주 반영	• 모든 대학 자율 • 지·덕·체 등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파일식 • 모집단위별 관련 일부 과목

구분	기준	개선안 (2002학년도)
6. 본고사	• 국·공립 금지	• 국·공·사립 모두 금지
7. 수능시험	• 주로 획일적 점수 반영 • 3개영역 • 소수점 및 총점 • 영역별 점수	• 자격기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 • 5개 영역 • 폐지 • 영역별 점수와 등급제 (9등급)
8. 고등학교 평가	• 객관식 일변도	• 주관식, 수행평가 병행(평가원도 보조자료 제공)
9. 면접	• 형식적 면접	• 심층 면접
10. 비교과	• 출결사항, 행동발달사항	• 봉사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취업 경력 등 다양
11. 컴퓨터교과	• 미반영	• 정보소양인증 여부 선택 반영
12. 전형유형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무시험전형 증가, 특별전형 확대
13. 추천	• 교장추천제	• 교장, 교사, 교육감 등 다양한 추천
14. 기록요구	• 주로 학생부 기록	•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학계획서 등 다양한 기록
15. 모집구분 • 수시모집 • 특차모집 • 정시모집	• 수시, 특차, 정시, 추가 • 합격자도 정시지원 가능 • 특차모집 • 4개군	•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 •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 불가 • 폐지 • 3개군, 공동관리 도입 추진
16. 주요선발 방법	• 시험성적 중시 • 총점위주 석차화 • 시험 위주 과외 성행	• 시험 비중 최소화, 다양한 자료 • 석차화 억제 • 특기, 적성, 흥미 등 학생 개성 있는 학습과 활동에 치중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1998).

□ 노무현정부의 대입제도

○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 확대 : 석차등급(9등급) 표기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 등급(9등급)으로만 성적 제공

○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 입학사정관제 도입, 전문성 강화

○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 농·어촌특별전형 확대(4%),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유도

<표 8>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구 분	기 준	개선안(2008학년도)
학교생활 기록부의 반영비중 확 대	• 성취도(수·우·미·양·가) 표기 • 석차/재적수 표기 • 교과별 평가	• 원점수 표기 - 평균 및 표준편차 병기 • 석차등급(9등급) 표기 • 교과별 독서활동 기록(2007) • 교수·학습계획, 평가기준의 공개(2006년) • AP제도 도입 운영(2006) • 대학정보 공시제(2005) • 교사별 평가 도입(2010, 중학교)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개선	• 백분위 및 표준점수로 성적 제공 • 합숙에 의한 폐쇄형 출제 • 1회 1일 실시	• 등급(9)으로만 성적 제공 • 문제은행식 체제로 전환 - 2008학년도 일부교과 시범실시 - 2010학년도부터 전 영역에 도입 • 연 2회 또는 2일 시험 검토 (2010학년도)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 고교 동일계열 진학 미흡 - 특목고 설립목적 약화 -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 미진 • 대학의 대입전형 전문성 미흡	• 고교 동일계열 진학 촉진 - 이공계 및 외국어전문인력 육성 특별 전형 도입 -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 활성화 - 예·체능계 수능 최저자격기준 완화 • 입학사정관제 도입, 전문성 강화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부족 • 농·어촌 특별전형(3%)	•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개발 •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4%) •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유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 이명박정부의 대입제도

○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한나라당(2007.10.9)이 이명박후보의 교육공약으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달성하기 위한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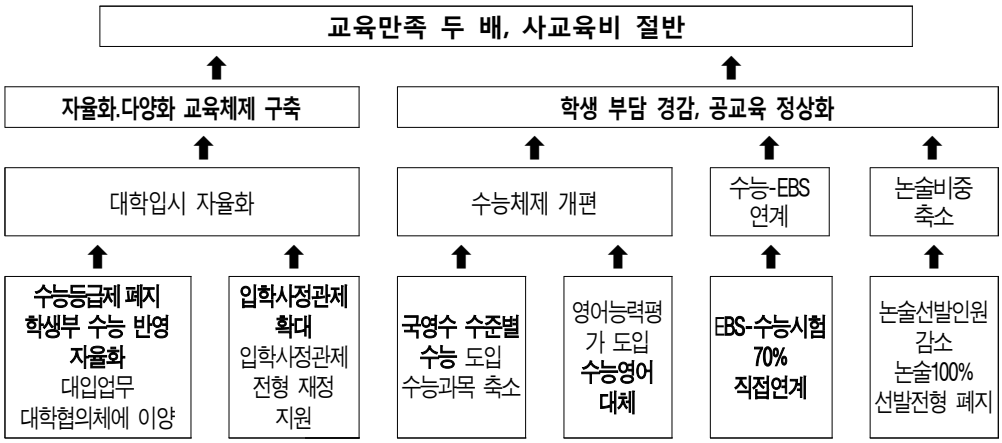
○ 이명박정부 출범 후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2008년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의 비전을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중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함께 ‘대입 3단계 자율화’가 추진됨

○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의 공식적인 정책목표는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달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한나라당, 2007.10.9)’에서는 1단계로 학생부와 수능 반영 자율화 및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2단계는 수능과목 축소, 3단계는 완전자율화로 구분하였음.

○ 이명박정부의 대입제도의 정책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6] 이명박정부 대입제도 개선안 정책구조의 인과관계



주: 핵심적인 세부 정책과제(정책수단) 굵은 고딕으로 표시
자료 : 안선회(2013).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 교육문제연구 26(4).

□ 박근혜정부의 대입제도

○ 박근혜정부의 2015, 2016, 2017학년도 대입전형제도

-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 축소

-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우선선발 금지

- 대학별고사 활용 :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적성고사는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함

-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발표 후 변경 제한
-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 진학 준비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도록 명시
-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통합
- 정시모집 동일 학과 내 분할 모집 금지

○ 박근혜정부의 2015, 2016, 2017학년도 대입전형제도를 2014학년도 이전 대입전형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9> 박근혜정부 대입전형제도

	종 전(2014학년도)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 전형 수 과다	• 수시4개, 정시2개 이내 전형방법 사용	• 좌 동
	• 지나치게 높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 좌 동
전형 예고시기	• (대교협) 1년 6개월 전 • (대 학) 1년 3개월 전	• 경과조치 적용	• (대교협) 2년 6개월 전 • (대 학) 1년 10개월 전
전형 발표내용	• 충분하지 않은 발표 내용 및 발표 후 잦은 변경	• 발표 내용 구체화 • 발표 후 변경 제한	• 좌 동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 균형적인 학생 선발 미흡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 입학 학생 다양성 확대	• 좌 동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 수시모집 중심 반영 • 석차 9등급(상대평가)	• 수시 및 정시 반영 내실화 • 석차 9등급(상대평가)	• 좌 동 •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성취평가제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 (2019학년도 이후 대입반영은 '15년에 결정)
	• 서술형(비교과) 기록 부풀리기 등 발생	•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 학생부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수능 개선	•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 (한국사) 선택과목	•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 좌 동	•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 폐지 • (한국사) 필수과목
	• EBS 70% 연계 출제	• 좌 동	• 좌 동

	종 전(2014학년도)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 출제 • 정보부재로 논술준비 어려움 • 면접 및 적성검사로 수험부담 가중	• 교육과정 총론의 '일반 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 좌 동 • 좌 동 • 좌 동
모집시기	• 수시 1,2회차 원서 접수 • 정시모집 가, 나, 다군별 분할모집 • 수능 11월 첫째주 실시	• 수시 원서접수 기간 통합 •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입학정원 200명 이상 모집단위는 2개군까지 분할모집 허용) • 수능 11월 둘째주 실시	• 좌 동 •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 • 수능 11월 셋째주 실시
대입전형 지원체계	• 대학 중심의 대입전형 관리·운영 •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제 미흡 • 민간업체 원서접수 대행	• 대학, 고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운영 지원 기구 구성 •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도입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좌 동 • 좌 동 •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 검토

자료: 교육부(2013.10.25).

○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대입전형 개요

- 박근혜정부 대입전형제도 추진과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변화된 전국대학의 대입전형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수시전형, 그 중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

<표 10> 전국 대학 대입제도 유형 비교

구분	전형유형	2016학년도	2015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0,181명(38.4%)	145,576명(38.7%)
	학생부(종합)	67,631명(18.5%)	59,284명(15.7%)
	논술 위주	15,349명(4.2%)	15,107명(4.0%)
	실기 위주	17,118명(4.7%)	17,359명(4.6%)
	기타	3,469명(0.9%)	3,767명(1.0%)
소계		243,748명(66.7%)	241,093명(64.0%)

구분	전형유형	2016학년도	2015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105,304명(28.8%)	118,905명(31.6%)
	실기 위주	14,365명(3.9%)	14,793명(3.9%)
	학생부(교과)	434명(0.1%)	569명(0.2%)
	학생부(종합)	1,412명(0.4%)	1,335명(0.4%)
	기타	46명(0.0%)	172명(0%)
소계		121,561명(33.3%)	135,774명(36.0%)
합계		365,309명	376,867명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08).

다. 대입제도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

○ 1990년대 - 2006년 : 수능 중심 전형,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

- 1994학년도에 고급사고력 측정과 통합교과적 출제를 위주로 하는 수능 도입
- 고급사고력 측정을 위주로 하는 수능시험에 대한 학교교육의 대응역량 부족
- 특히, 교과통합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교과중심 교육과정 상의 한계로 인해 늦어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함
- 내신절대평가와 부풀리기로 인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면서 대입에서의 변별력 약화, 그로 인해 수능점수 반영비율 지나치게 확대
- 결국,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을 통해 수능에 대비함으로써 사교육의 확산 초래

○ 2007년(2008학년도 대입) - 2013년 : 학생부중심 전형, '죽음의 트라이앵글' 형성

-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에 의해 내신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되고, 학생부 반영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능등급제 도입
- 내신상대평가제와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에 따라 학교교육에 이전보다 충실하게 임하는 긍정적인 결과 가져옴
- 하지만, 이와 함께 내신성적 상대평가로 인한 이기적인 내신경쟁,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교육 수능경쟁, 그리고 수능 변별력 약화에 기인한 논술비중 확대로 사교육 논술경쟁까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함정에 빠짐

- 결국, 학교에서의 경쟁 심화, 지나친 사교육비,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초래

○ 2014년(2015학년도) : 학생부중심전형 유지하며 논술, 수능 위주 트랙도 가능

- 이명박정부 시기에 입학사정관제 전면 확대, 학생부 비교과 반영 확대, 수시와 특별전형 확대, 특기자전형 확대 등 변화를 가져옴

- 학생부 높은 반영 비중(수능, 논술 축소)과 입학사정관제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 의도

- 결과는 대입제도의 복잡성 증대, 복합적 경쟁 심화, 사교육비 증가,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 미흡, 선발을 통한 사회불평등 확대

○ 2011학년도에 도입되고, 2012학년도부터 본격화된 수능-EBS연계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파행 심화

- 수능-EBS연계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육을 위한 고차적인 사고력 측정이라는 초기 수능의 도입 취지 왜곡

○ 박근혜정부 대입제도에 대한 효과성 진단

- 교육정책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평가준거는 효과성이며,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

- 박근혜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1) 대입준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2) 공교육 정상화 (3) 교육주체 부담 완화(사교육비·학습·전형지원 부담), (4) 계층 간 불평등 해소, (5)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실현이라는 다섯 가지 평가항목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안수진, 2015).

※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의 고등학교 교사(고3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 고등학교 학생(고3에 재학 중인 학생), 고등학교 학부모(고3 자녀를 둔 학부모) 등 1,152명

- 조사결과, 대입전형 간소화에 대한 효과성만 중간점(3.0은 '효과 없음'을 의미)을 미미하게 상화할 뿐,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행복교육 실현 등 나머지 정책목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중간점(3.0) 미만으로 부정적인 역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강함

<표 11> 2015학년도 대입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평균	*2.87*	*2.87*	*2.75*
표준편차	0.90	0.86	0.90
대입전형 간소화	3.45	3.17	3.17
공교육 정상화	2.92	2.93	2.75
사교육비 경감	2.86	2.91	2.66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2.86	2.86	2.69
계층 간 불평등 해소	2.77	2.80	2.71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실현	3.07	2.90	2.82
논리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	2.81	2.78	2.69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	2.73	2.81	2.72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	2.73	2.80	2.71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판단력 신장으로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	2.79	2.79	2.66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신장에 기여	2.79	2.81	2.71

○ 대입제도 변화의 경향

- 대입정책의 목표 : 학교교육의 정상화 유도, 사교육 완화

- 학생부를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 다만, 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수능에 의해 선발

- 대학의 자율선발권 신장 : 학생부, 수능, 논술·면접·적성검사·실기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 유도

4.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 분석

1) 미래형 인재의 교육 · 선발 · 양성 저해

□ 대학교육 이수를 위한 사고력, 창의성 등 미래역량 측정 불가

○ 수능, 논술, 내신 등 주요 전형요소 모두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풀이 위주.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에서도 성적(또는 성적의 상승곡선)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

- 도입 초기 수능과 달리, 현행 수능은 수학(修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지능력 중심 암기력 측정

- 특히 EBS 수능 연계가 강조되면서 영어의 경우 아예 한글번역만 외우는 학생도 등장. 고교 교육은 EBS 수능 문제풀이에 그치고 있음

- 즉, 수능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없으며, 지금의 선택형 수능에서는 학생의 관심이나 능력보다는 높은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에 쏠리는 요령 횡행

□ 교과 이기주의로 인해 수능의 목적 변질

○ 도입 초기 수능은 '대학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교과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춰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으나, 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수능의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고교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수능에서 다루지 않으면 교육이 잘 안 된다'는 논리에 의해 교과목별 수능으로 변질

○ 문 · 이과 구분없는 언어 · 수리탐구 · 영어로 시작했던 수능이 7개 영역 35개 과목으로 쪼개짐. 교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과도한 과목 쪼개기가 수능의 출제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과목 선택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도 무너뜨림

2) 낮은 정책신뢰도

□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잦은 제도 변경

○ 1994년 도입된 수능은 20년간 16회 변경. 거의 매년 바뀐 수준. 이처럼 잦은 변경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림.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정책대상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정책신뢰도를 형성하지 못함

- 우리나라는 정책 결정권자의 가치관, 각 정부가 중요시하는 가치,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대입정책 바뀜. 특히 정권이 바뀌면 예외없이 대입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꿈

- 새 정부 초기마다 정치적인 욕심과 맞물려 이른바 '입시 드라이브'를 거는 일이 잦음. 특히 지난 정권이 만든 대입정책에 조금이라도 불만 여론이 있으면 곧바로 새로운 정책을 꺼내 드는 관행이 대입제도를 불안하게 만듦

○ 정치적 결정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는 매번 교육정책을 뜯어고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책 책무성 부재

- 사회적 합의없는 개정안을 내놓고, 부작용과 폐단이 나타나면 그때 또다른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 반복

- 현 정부에서 새 입시정책의 도입을 결정했어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약 4년이 걸리니, 시행 뒤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음

□ 쉬운 수능 기조

○ 현행 수능의 모순은 시험을 통해 등급이나 점수까지 모두 제공하면서 문제는 쉽게 출제. 이런 체제하에서 대학은 수능 점수로 수시 합격자의 최저학력을 가리거나 소수점 차이로 줄 세워 학생 선발

○ 정부가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정책목적)는 시험 부담을 줄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 그러나 입시경쟁 강도의 총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은 요원

- 쉬운 수능으로 의미있는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정부가 수능을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정작 대학이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학 정원으로 인해 경쟁의 강도는 줄 수 없음

- 실수가 좌우하는 시험은 그 다음해 재수와 반수 양산. 실수 안하려는 소모적인 경쟁만 과열. 결과적으로 교육적으로는 무의미한 과열경쟁 초래

□ 사교육 심화

○ 정부가 대입제도를 자꾸 바꾸면서 점점 학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대입 시스템 공고해지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심화

- 잦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서 빠르게 대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입시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는 불만 쏟아짐. 아무리 좋은 대입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속도가 더딘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바로 적응하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입시 개선안이 새로 나올 때마다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 현장에서는 '최악의 입시라도 안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 다수 (동아일보. 2014.12.15.)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불신

○ 지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별 인재상에 따른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선발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그러나 정성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우려 제기

- 선발기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 우려 증가

- 또한 교과 이외의 활동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상 다양한 경험 축적에 유리한 고소득계층의 자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불평등의 재생산 우려 증대

3) 타당성 부족

□ **대입전형과 교육과정 불일치** (안정희, 2014)

○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대입전형이 연계적 또는 종속적인 성격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작동. 대입제도 변천과정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논리와 유사한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고 변화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대입제도의 변화시기에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대한 고려 또는 교육과정 성과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서의 대입제도 운영 노력 등은 거의 부재

-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택과 경험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대입제도는 교육과정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교육사조나 철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방향과는 관련이 적은, 사회·정치적 이슈 또는 평가의 객관성, 기회의 평등 등과 같은 문제에 기초하여 시행·변화

□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

○ 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 실패

○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연계성 부족

□ **수능-EBS연계정책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 초래**

○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도입한 수능-EBS 연계정책으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까지 교과서를 제쳐놓고 EBS교재 사용. 특히 고3의 경우 EBS 교재가 수능과 연계되기 때문에 100% EBS교재 사용. 공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교실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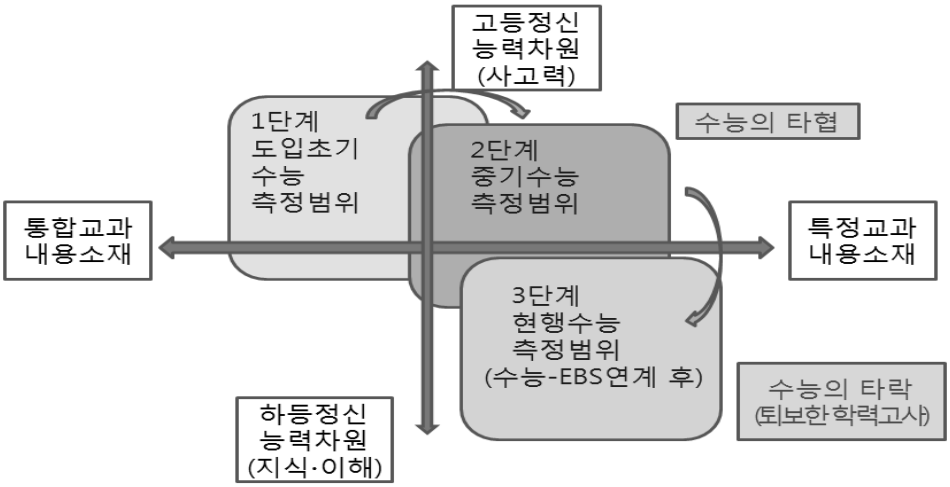
- 2년 연속 수능의 출제오류 발생. 특히 2014년 오류는 EBS 교재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교재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음. 교재 자체가 부실한 탓에 오류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음

○ 안선회(2014)는 EBS 토론과정에서 수능-EBS연계정책으로 인한 수능시험의 구도 및 특징 변화를 다음 그림과 같이 분석함

- 수능의 타협 : 1990년대 후반 수능사교육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과통합적 수능 출제방식이 교과 내 단원 간 통합 출제 방식으로 변화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의 타협

- 수능의 타락 : 2011학년도에 수능-EBS연계 70%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능이 EBS 교재의 지식 내용을 암기하여 대비하는 방식으로 변질, 이로 인해 '수능의 타락' 현상 발생하면서 오히려 '퇴보한 학력고사'로 변질

[그림 7] 수능-EBS연계정책으로 인한 수능시험의 구도 및 특징 변화



○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평가의 왜곡 초래, 특히 수능-EBS연계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파행 심화

- 교육내용 : EBS 수능교재가 교과서 대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왜곡

- 교육방법 : 일방적인 강의 중심 교수법, EBS 교재 활용강의, 변형강의 등 성행,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키우는 교육방법 제약

- 학습방법 : EBS 교재 달달 외우기, 변형 강의 암기식 학습 유발,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학습흥미도와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저해

- 수능출제 및 학업성취 제약 : 사고력 중심의 수능 출제 제약, 수능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지식 측정

□ 대학에 대한 학생의 정보부족과 대학의 이기적 행태

○ 대입전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매우 낮음. 대학은 서로 눈치를 보며 요강을 조금씩 수정. 이에 맞춰 수시·정시모집에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것은 수험생의 몫

- 자기 실력과 성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붙을 수 있을지 수험생은 알기 어려움. 대학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사이에 입시기관은 제각기 '입시 배치표' 발표. 대학이 합격자의 성적 정보 비공개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관행

○ 대입전형을 통해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학은, 국가 전체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기 대학이 배치표의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입시요강 짜고 있음

-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면 할수록 대학은 이를 피해 더 복잡한 '입시 방정식'을 만듦

4) 대입제도 인과구조

○ 대입제도 관련 정책문제의 인과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8] 대입제도 관련 정책문제의 인과구조 분석

원인(정책)			대학대응/직접결과			대입문제		교육현장 비정상화			종합적인 영향	
학생부	•비중 확대 추진 •상대평가 존속 •학생부 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확대	▷	•학생부비중 확대 •주요대학 학생부종합 평가 증대 *교과 급간 축소 •수능전형 축소	•대입 복잡성 증대 •학교교육 충실 • 교육활동 부풀리기	▷	• 창의인재 발굴, 양성 실패 • 공정성 부족 • 객관성, 신뢰성 부족 • 사교육비 증가 • 선발에서의 계층불평등 심화 • 타당성 부족 • 꿈과 끼 살리기, 행복교육 저해	▷	학교 교원	•교육내용 한정: EBS교재 •교수방법 왜곡: 강의식 •평가 왜곡: 지식 평가 •비교과 부풀리기 심화 •학교교육력 신장 저해 •교육권위, 자긍심 약화	▷	교육적 영향	•창의인재 선발 장애 •학교교육 비정상화 초래 •자기주도 학습력과 태도 약화 •교육적 경쟁 심화 •선발에서의 계층불평등 심화
논술면접	•대학별 논술정책 • 논술확대 지양 • 교육과정 내 출제 • 면접 허용	▷	•주요대학 논술 유지 •심층면접 확대	•학교에서의 논술대비 포기 •사교육을 통한 대비 •학교교육 개선 효과 미흡	▷		▷	학생	•학습부담 과다 •학습방법 왜곡: 암기식 •학업성취 제한: 지식 •이기적인 성적 경쟁, • 적성, 꿈 살리기 저해, 행복 약화	▷	사회적 영향	•사교육비 증대로 인한 가계 부담, 고통 증가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구조 심화 •국민행복 실현 저해 •국가 인적자원 손실 •정치적 비판과 불만 증대
수능	•국영수 중심 반영 허용 • 수능-EBS연계	▷	•국영수 중심 반영 유지 •수능전형 축소	•교육, 학습 비정상화 •수능 타당성, 신뢰성 약화 •탐구 약화	▷			학부모	•사교육비 증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 •행복 약화			

Ⅲ. 해외 사례

1. 대학입학전형의 개요

1) 미국

가. 대입제도 개관

○ 미국의 대학교육협의회인 The College Board는 미국 입학사정의 4대 철학적 기반을 적격성 기준(eligibility base), 성취도 기준(performance base), 수혜력 기준(student capacity to benefit), 기여도 기준(student capacity to contribute)으로 정립함(김영철, 2011)

- 적격성 기준(eligibility base)은 대학 입학은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열린 기회임을 강조

- 성취도 기준(performance base)은 합격자의 선발에 있어서 과거 학업의 성취도 및 개인적인 품성(자질)을 검토하여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

- 수혜력 기준(student capacity to benefit)은 대학교육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원칙 하에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

- 기여도 기준(student capacity to contribute)은 선발에 있어서 입학하는 학생의 사회발전에의 기여나 대학교육 증진에의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미국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므로, 대학에 따라 학생 선발 방식이 매우 다양함. 그러나 크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합격이 되는 공식에 의한 평가 방식과 학업적·비학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립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 기준만 넘으면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문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는 여러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임

○ 약 20%에 해당하는 명문대학은 경쟁을 통해 입학을 해야 하며,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외에 자기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비교과 능력에 관련한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함.

○ 이 때 학업성적이 중요한 전형요소가 되지만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학생의 학업 수준과 지적 능력에 따라 편성되어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수강하는 과목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점수 따기 경쟁을 하지는 않음 (정진곤, 2004)

○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일부 사립대학과 대부분의 주립대학, 지역사회대학 (community colleges)에서는 지원자가 일정 자격만 갖추면 입학을 시켜주는 개방적인 입학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나. 대입제도 특징

□ 학생 선발 방식의 다양성

○ 미국의 대학 입학제도는 주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형 모형은 없음(김상길, 2010)

- 주립대학 : 소외지역 학생, 그 주에 소속된 학생 배려 등의 주정부 지침을 제외하고는 입학전형은 대학 재량임

- 사립대학 : 전적으로 대학 재량에 맡김

○ 전형자료의 다양성이 있음. 학생 선발 시 학문적 능력과 비학문적 능력을 함께 고려함(한국교육개발원, 2009)

- 학력 주요 요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대학준비 교육과정의 성적, 대학 입학관련 시험(SAT Ⅰ, SAT Ⅱ, ACT) 성적[2], 고등학교 전체 성적

2) -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학업능력·적성평가·추론능력 평가에 초점. 11학년 봄 학기와 12학년 가을 학기에 각각 1회씩 총 2회
- ACT(American College Test): 학습 능력과 지식을 평가해서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 어학적 추리능력, 분석적인 독서능력, 수학 문제해결능력 측정. 대학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학업적성을 측정하였던 SAT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
- Subject Test: SAT Ⅱ라고 불림. 특정 과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식을 적용할 능력을 측정
- AP(Advanced Placement): 대학수준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수강하는 것. 필수는 아니지만 명문대 입학 시 AP 점수가 없으면 도전정신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지원자가 대학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근거자료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고등학교 과정 중 하나

- 학력 보조 요인: 학교 전체 석차, 자기소개서/에세이, 추천서

- 비학력 보조 요인: 면접, 특별활동 경력,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나 인성적 자질

○ 대학입학 허가방식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 대체적으로 3유형(박승렬, 2005)으로 나눌 수 있음

① 학력 우수자만 선발: 명문 사립대학, 명문 주립대학

- 생활기록, 신상보고서, 소논문, 추천서, 면접, 과외활동, 근로 및 사회봉사 활동, 스포츠, 특기, 인문 및 성격도 제 요소가 되지만 참고 요인이며 결정요인은 학업 성취 능력

② 대학 수학 능력자 선발: 대학에서 학습하는 데 학력적으로 지장이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합격

- 대학별 선발을 실시하지 않고 지원자의 고등학교 이수 단위수와 성적 사정
-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립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성적이 평균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입학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수의 주립대학에서는 성적의 등위가 상위 1/2 또는 1/3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

③ 모두 입학시키는 개방적 입학방식

- 대부분의 2년 주립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일부 2년제 사립 지역사회대학, 일부 4년제 주립대학, 소수 4년제 사립대학

○ 즉, 대학은 경쟁과 선별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가 존재함(김영석, 2004)

- 사립대학은 선별적인 학생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립대학은 몇몇 대표적인 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구나 입학시키는 개방적 입학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또한 대학입학 허가 방식 유형에 따라 중요시하는 전형요소 또한 다름. 명문 대학일수록 학력 요인이 중요하지만 학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음

○ 이렇게 대학의 층이 나뉘어져 있지만 서열 체제라고 볼 수는 없음. 선별에 의한 경쟁은 전체 대학의 20%에 해당하는 일부 사립대학과 일부 명문 주립 대학에서만 행해지며, 80%는 일정 자격만 충족하면 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임 (김영석, 2004)

□ 고등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 연방정부에서 세대 간 가난의 대물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로 보고(남수경, 2009), 저소득층 및 1세대 학생(first generation student)[3]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여 TRIO 프로그램 실시

- TRIO 프로그램: 저소득층 및 불충분한 중등교육 준비상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동기부여를 위해 설계된 1960년대 '세 개 프로그램'에서 시작됨(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남수경(2009)에서 재인용)

- '세 개 프로그램'
  - 1964년의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업보충 프로그램(Upward Bound)
  - 1965년의 대학 입학 및 재정지원 정보제공 프로그램(Talent Search)
  - 1968년의 저소득층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Student Support Service)

-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TRIO 프로그램은 2014년 현재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5장 참고)

- TRIO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및 1세대 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과 대학 진학 정보 습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학원 진학 준비에 도움을 받기도 함

○ 지역 출신 학생 배려

- 미국의 많은 주립대학은 일정 비율의 상위권 학생을 자동입학시킴으로써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음. 그 예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상위 4%, 텍사스는 10%, 플로리다 주는 상위 20% 학생을 자동으로 입학시키고 있음

□ 대학의 자율성 보장

○ 미국 연방정부는 주립/사립대학 입학시험, 모집요강 및 절차, 입학정원 등의 사항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3) 부모 세대에 대학 졸업자가 없고 학생 본인이 집안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첫 번째 세대인 경우

○ 주립대학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20% 정도로 정부의 재정에 의해 유지되는 대학은 전무함(이성호, 2005)

○ 주정부는 주립대학의 입학정원, 학사과정, 학위과정 신설 등을 심사해서 승인하는 기능을 담당, 예산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나 최근 주립대학의 주정부 지원금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사립대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며(박부권, 2005), 학생 선발도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정진곤, 2004)

○ 즉, 주립/사립대학 모두 기회보장법과 같은 법률적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 대학 입시 운영에서는 실질적인 자율성을 누림

2) 일본

가. 대입제도 개관

○ 일본의 입학 제도는 크게 일반 입학, 추천 입학, AO 입학의 세 가지로 나뉨

- 일반 입학 : 대학입시센터시험(센터시험)과 대학별 시험을 통한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 추천 입학 : 학교장 추천, 예체능이나 봉사 등 특정분야 우수자 추천, 지정교 추천 등이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서만을 평가하여 입학을 인정하는 제도
- AO 입시 : 입학사정관제도로, 다양한 입학전형 요소를 사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 국공립대학의 경우 센터시험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으며 명문대학일수록 지원자에게 더 많은 센터시험 과목을 요구함. 또한 명문대학일수록 대학별 고사의 비중 높아짐

○ 센터시험의 과목 활용과 입학 사정에서의 비율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이며, 추천 입학과 AO 입학과 같은 다양한 입학 제도가 있으므로 대학마다, 대학 내 학부와 학과마다 활용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달라짐

○ 1990년대 이후로 대입제도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 일방적 학력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학생의 귀중한 진로 선택의 기회로 고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연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고교-대학 연계가 핵심 사안이 되어 중시되고 있음

나. 대입제도 특징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이 존재** (김미란 외, 2009)

○ 학생 선발 방식의 차이

- 국공립대학: 대학입시센터시험 및 대학별 시험을 조합함.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서 비롯되어 비교적 단순함
- 사립대학: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독자적인 학풍을 살려 자율적으로 선발함

○ 대학별로 학력 시험 과목이 모두 다름

- 국공립대학 :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 3~6개를 요구함. 대학별 시험도 2개 교과의 학력시험을 요구함
- 사립대학 :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 1~2과목을 요구함. 입시부담이 적음
- 이러한 대학입시센터시험 교과목 자율 선택은 대학의 일률적인 서열화를 방지하고 대학 특성화를 꾀함(정광희 외, 2009)

○ 대학별로 시험 결정 주체가 다름(정광희 외, 2009)

- 국공립대학: 국립대학협회, 공립대학협회
- 사립대학: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함

□ **대학 자율성 보장**

○ 대학 학생선발권 보장(박선형 외, 2008)

- 문부과학성은 대학 운영의 최소한의 강제 규정(기여 입학 금지, 추천입시 모집 상한선 등)만 제시하며, 매년 학생선발 방법의 다양화와 명확한 입학

사정 기준 제시 등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 입학자 선발 실시요강'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통보함

- 이는 학생선발 방식의 다양화와 입학사정 준거의 명료화에만 국한됨
- 대학입학센터시험 적용 범위도 대학 자율에 맡김
- 즉, 국공립/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입시전형에서 학생선발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 받음
- 일반 입시 외의 기타 입시는 국공립/사립대학 모두 대학이 관리 주체이므로 입시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함

□ **대학 특성에 따른 입학전형 다양화**

○ 다양한 입학전형 활용으로 학생 선발

- AO 입학제도, 추천 입학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 활용

○ 전공학과에 따라 선발 방법 및 내용이 다름

- 센터시험 활용 과목도 대학에 따라 다르며, 학부와 학과에 따라 요구하는 과목에 차이가 있음
- 전공 학과 교육목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선발
- 학부, 학과별 다양한 입학전형 방식은 모집단위별 교육연계와 적격자 선발을 가능하게 함
-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과목과 단위를 명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를 도모함

□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 1990년대 이후 대입정책에서 고교-대학 연계는 핵심이 되었으며, 대학 입학을 대학의 일방적 학력 시험을 통한 선발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의 기회로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의 문제로 파악함(김미란 외, 2009)

○ 2008년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학사과정교육의 구축을 위하여' 답신에서도 고교-

대학 연계 방안의 개선을 지적하며,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발견하는 방안과 대학 진학 희망자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상호 선택'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컨소시움을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 간 정보 교환, 대학의 강의 제공 등의 활동,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일관 교육과정 운영 등의 고등학교와 대학 간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짐(자세한 사항은 4장 참고)

3) 영국

가. 대입제도 개관

○ 영국은 16세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을 마친 후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성적에 따라 대학진학준비반(Sixth Form)이나 직업교육반으로 진학하고 일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출함

○ Sixth Form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인 A-level 시험을 준비하게 되며 이 때 학생이 진학을 원하는 대학 전공에 따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목이 달라짐. 1년차 과정인 AS level에서 4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교육 받고, 2년차 과정인 A2 level에서 3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함

나. 대입제도 특징

□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따른 진로 구분** (박희진 외, 2012)

○ 국민공통 기본교육이 끝나는 16세 시점에서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따라 진로가 구분됨

- 대학 진학 희망 시: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인 Sixth Form에 진학
- 대학 진학 비 희망 시: 직업훈련과정에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으로 진입

○ 대학 입학시험 준비는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인 Sixth Form에서만 이루어짐

○ 직업훈련과정 진학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을 인정해주며 교차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둠

□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 대학 입학시험인 A-level 시험 과목은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음

-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과목과 수준은 지원 대학과 계열에 따라 다양함

- 예를 들어 경제학부의 지원자는 경제학과 수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그 외 역사나 영어 등의 한 과목을 포함해서 3과목의 점수가 요구됨. 수학과의 경우, 수학은 요구하지만 영어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의과대의 경우 생물과 화학을 필수로 요구함(함석동, 2004)

○ 즉,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대입 준비 과정에 들어갈 때부터 학생은 자신의 지원 전공 분야를 결정해야 함

- 대학입학 준비 과정인 A-level 과정에서는 대학 입학 시 지원할 전공으로의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됨

- 영국의 고등학교는 대학입학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임(함석동, 2004)

- 김정빈(2008)은 이러한 Sixth Form, 즉 영국 대학 입학 준비 과정의 특징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입학을 목표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광풍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함

□ 국가가 아닌 민간 법인체에서 대학입학시험 출제

○ 영국에서는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인 GCSE와 대학 입학시험인 A-level의 출제 기관이 국가가 아닌 어워딩 보디(Awarding Bodies)라 하는 민간 법인체임

○ 교과과정을 어워딩 보디가 편성하며, 어떤 학교가 특정 어워딩 보디를 선택하면 그 어워딩 보디가 편성한 교과과정을 가르쳐야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어워딩 보디를 감독하고, 어워딩 보디 간 시험 난이도 수준을 조율하고 교육부 지침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인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가 존재함

2. 대입 주요 전형요소와 전형 방법

1) 미국

□ 고등학교 내신성적

○ 입학 후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중요한 근거가 고등학교 교과 성적임(정진곤, 2005)

○ 내신성적을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는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퍼센트 내에 들지 못한 학생은 더 높은 대학적성검사(SAT) 점수나 미국대학시험(ACT)을 요구(김상길, 2010)하게 될 정도로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중요한 요소임

○ 미국의 대입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최우선 기준이 됨. 이는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잘 설명해준다는 점 외에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김영석, 2004)

○ 미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학생의 학업 수준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며,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수하는 교과목이 다름(정진곤, 2004)

-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고등학교 4년 동안 이수한 교과목과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 교과목의 수업이 수준별로 이루어져 같은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과목 옆에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수준이 적혀있음

- 성적표에는 학생이 이수한 AP(Advanced Placement)과목과 학점이 학기별로 기재되어 있음

- 대학은 성적표를 통해서 학생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성적을 취득하였는지를 살피게 됨

○ 즉, 지원자가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의 수준과 구성,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였는지 판단함(박희진 외, 2012)

- 이 때, 단순히 성적을 기계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점수화하지 않음(정진곤, 2004)

- 대학은 고등학교 4년 동안 학년이 올라가는 동안 지원자의 성적이 향상되었는지, 수준 높은 교과목을 이수하는 등의 지적 도전감과 호기심이 있는지를 입학사정 시 고려함(정진곤, 2004)

- 특히 최상위대학에서는 대학과목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나 우등(Honor course) 과목을 선택하였는지,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별 요소임(박희진 외, 2012)

○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은 주립대학이 67.8%의 비율로 사립대학의 64.9%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교 전체 성적은 사립대학의 47.7%, 주립대학의 43.5%가 중요한 입학 사정 요인으로 삼고 있음. 또한 고등학교 석차는 전체 평균 21.8% 중 사립대학에서 25.0%의 비율로 더 중요하게 고려함(박희진 외, 2012)

□ **표준화 시험**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

○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요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화된 시험은 대학적성검사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이하 SAT)와 미국대학시험인 ACT(American College Test, 이하 ACT)를 들 수 있음

○ SAT

- 독해력(critical reading), 수학능력(mathematical reasoning), 작문(writing skills)으로 구성됨(과거 SAT는 언어 영역과 수학 영역으로 나뉨)

- 독해력 영역은 모든 문항이 다지선다형임. 수학능력 영역은 다지선다형 문제와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고 빈 칸을 채우는 형식의 문항도 포함함. 작문 영역은 에세이 시험과 다지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짐

- 학생은 각 영역별로 세 개의 점수를 받게 되고 최하점 200점~최고점 800점 사이에 분포함

○ SAT 과목 시험(SAT Subject Tests, SAT Ⅱ, 이하 SAT 과목 시험)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성취를 보여주는 시험으로 교과 내용 위주로 이루어짐

- 따라서 SAT 과목 시험은 대학에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음

- 많은 대학에서 SAT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함

- 영어, 역사, 수학, 과학, 외국어 영역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이 객관식임

- 200점이 최하점이며, 800점이 최고점임

○ ACT

-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ACT 점수를 인정함

- 적성 검사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을 예언하는 기능이 높음(김상길, 2010)

- 작문을 포함하여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추론으로 구성됨

○ 미국에서는 SAT와 같은 표준화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님. 즉, 시험 점수가 절대적인 합격 기준이 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워싱턴대학의 경우 SAT 점수를 3단계로 구분하여 1점~3점을 부여함. 즉, SAT에서 거의 0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과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간의 점수 차이는 200점 만점에 불과 2점에 불과할 정도로 SAT 점수의 비중이 낮은 경우도 있음

○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업성취가 중요하나, 많은 주립대학의 경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하거나 2년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의 경우는 학업 성취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를 입학시킴

□ **대학별 고사**

○ 학업적인 능력 외에 인성, 예체능 실력, 리더십, 사회 봉사와 같은 비교과 능력과 추천서, 면접, 신상 정보와 같은 비학업적인 능력도 입학 사정에 사용됨

○ 이러한 비학업적인 능력은 대학별 특징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나 예체능

분야의 특기, 봉사활동, 교내외 활동에서의 리더십, 성취의욕과 도전 정신, 지역·대학·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이 중시되고 있음(한국교육개발원, 2009)

○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비학업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주립대학은 고등학교 학년 석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편임. 그러나 주립대학에서도 중요시하는 입학 사정 요소는 매우 다양함

- 예를 들어, 버클리대학은 비교과 활동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지만, 샌디에이고대학은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낮음(김미란, 2009a)

2) 일본

○ 일본의 대입전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일반 입학

- 대학입시센터시험+대학별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입시

- 국공립대학에서 주로 실시함

-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 학부, 학과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 자율임

- 대학별 시험은 학력 평가, 소논문, 심층면접, 실기시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② 추천 입학

- 공모제 추천
  - 자기추천: 담임 교사나 지도 교사가 작성한 평가서 및 조사서(내신성적 조사서) 제출
  - 학교추천: 교장의 추천으로 주로 국공립대학에서 채택
  - 특별추천: 스포츠, 사회자원봉사, 특정분야 우수자, 자격취득 등

- 지정교 추천
  - 대학이 학부별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교를 지정하여 해당 고교에 추천 입학생 수를 배분

- 학과 시험 없이 서류만으로 학생 선발
- 매년 입학 성적을 검토하여 고교를 지정

- 내부 추천
  - 부속고등학교 출신자가 계열 대학에 추천을 통해 입학

- 동맹교 추천
  - 특정 종교 학교와 같이 교육이념이 동일한 학교 간에 추천을 통해 입학

③ AO 입학

-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

- 주로 자기추천으로 이루어짐

□ **고등학교 내신성적**

○ 일본의 추천 입학과 AO 입학은 모두 고교생활의 총체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추천 입학에서는 학생의 특기나 배경, 내신성적, 교육 이념을 중시하며 중요한 입학전형요소는 내신, 소논문, 면접임

○ AO 입학은 학력검사에 편중되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 등이 중요하며 수험생의 능력, 적성, 학습에 대한 의욕, 목적의식이 중요함.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적 성취 및 비교과에서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 중요 입학전형요소임

□ **국가 시험**

○ 일본의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입학자선발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약칭 '센터시험'이라 부르기도 함

○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된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이 그 전신으로, 1990년에 제1회 센터시험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센터시험이 필수이며, 사립대학의 참가도 증가하고 있음

○ 센터시험의 활용은 센터시험 이용 교과 과목을 대학이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 학과에 적합하게 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

○ 센터시험 이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① 센터시험 단독형

- 센터시험 결과만으로 합격/불합격을 판단

- 합격을 위해서 높은 득점이 요구됨

② 센터시험 + α 형

- 센터시험 결과와 대학 자체 시험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성적으로 합격/불합격을 판단

-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서 이 유형을 채택함

③ 센터시험 1차 선발형

- 센터시험 결과를 1차 선발[4]에만 이용하고, 최종 합격/불합격 판단은 본고사에 해당하는 대학 자체 2차 시험의 결과만을 이용하는 형태

- 도쿄대학, 교토대학 등에서 실시[5]

○ 출제과목은 2012년 기준 지리역사, 공민, 국어, 외국어, 이과, 수학1, 수학2 6개 교과 29개 과목으로, 수험생은 필요에 따라 응시할 과목을 최대 8개 과목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학생들이 공통된 과목을 획일적으로 시험 보지 않으므로 시험만으로 서열화 될 수는 없음(정광희, 2004)

○ 시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되며, 고등학교 기초학력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임(박선형 외, 2008)

○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 지원 학생은 주로 7~8개 과목을 선택, 하위권 대학 지원 학생은 주로 3~4개 과목을 선택함

4) 국공립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나쁜 사람을 우선 탈락시키는 것

5) "국공립대학은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변별력이 없어 명문 국립대학의 경우 2차 시험으로 국어, 영어 등의 7~8개 과목을 활용하는 대학별 학력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선형 외, 2008, p.214)."

<표 12> 도쿄대학 센터시험 이용 예

교과	과목	선택
국어	국어	필수
지리역사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지리·역사 혹은 공민에서 2과목 필수
공민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수학	수학1, 수학2, 공업수리기초, 부기·회계, 정보관계기초	수학1은 필수이며 나머지에서 1과목 선택
이과	물리1, 화학1, 생물1, 지학1	1과목 선택
외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1과목 선택 영어 리스닝테스트 성적 이용

출처: 김미란(2009) p.78에서 정리.

○ 사립대학은 센터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1~2과목 정도만 요구하여 입시부담이 적음. 반면에 국공립대학은 3~6과목을 요구하여 사립대학보다 센터시험 비중이 큰 편임

□ 대학별 고사

○ 일본에서 대학별 고사는 일반 입학인 경우 1차인 센터시험 외에 2차로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거나, 추천 입학과 AO 입학에서 센터시험 외의 요소로 입학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음

① 일반 입학에서 대학별 고사

- 일반 입학에서 1차로 센터시험 결과를 활용하고, 2차로 대학별 고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학, 학부, 학과 자율에 맡김(김미란, 2009a)

- 사립대학의 경우 센터시험 활용 및 대학별 고사의 출제 방식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음

- 국공립대학의 경우 센터시험 활용이 의무이나, 2차 시험인 대학별 고사를 활용할 경우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출제하게 됨

- 예를 들어, 도쿄대학의 경우
  • 전기와 후기[6]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전기에서는 센터시험 총점으로 지정 배율

(2.5배~4배)로 1차 선발을 하고, 1차 선발자에 한하여 도쿄대학의 독자적인 2차 학력시험을 보게 함. 이 때 합격 여부는 센터시험 성적을 1, 2차 학력시험 성적을 4의 비율로 점수화하여 총점으로 함

- 후기의 경우 센터시험 총점으로 지정배율(5배)로 1차 선발을 실시하고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도쿄대학의 독자적인 2차 학력시험을 실시함. 후기에서는 합격 여부가 2차 학력시험만을 통해 이루어짐(김미란, 2009a)
- 2차 시험에서는 도쿄대학 자체 영어 리스닝 시험을 치르며, 수학 등의 과목을 출제하는 경우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험 내용과 시험 과목 수를 설정함으로써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도쿄대학 2차 학력시험 예

<표 13> 도쿄대학 2차 학력시험 예

과목	내용	배점
종합과목 I	영어의 독해력 및 기술력을 테스트	100
종합과목 II	사상의 해석에 수학의 응용력을 테스트	100
종합과목 III	문화, 사회, 과학 등의 문제에 관한 논술로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테스트	100

출처: 김미란(2009) p.78에서 정리

- 국공립대학에서 대학별 시험은 전기에서는 교과별 학력시험을 주로 하며 후기에는 교과별 학력시험보다 종합시험, 논술시험, 실기 시험,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시험 내용은 대학마다 내용이 다르며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부 또는 전공에 따라 상이함(김미란 외, 2009)

② 추천 입학에서 대학별 고사

- 추천 입학은 공모제 추천, 지정교 추천, 내부 추천, 동맹교 추천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별도의 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공모제 추천 유형처럼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추천서 내용에 고등학교 성적, 예체능 분야의 재능, 봉사활동 경험 등을 포함하게 되며, 지원자는 면접이나 소논문 등을 통해 선발됨

6) 국공립대학은 '대학입학 입학자 선발 실시 요강(제10조)"에 근거하여 개별 대학의 자체 본고사 형식으로 실시하는 2차 시험 선발일정을 전기, 후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됨. 동일 대학 내의 1개 학부나 1개 학과의 정원은 2개로 분할하여 수험생을 모집하며 통상 전기와 후기의 시험과목과 배점은 서로 다름.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을 전기 일정에서 대부분 충원함

③ AO 입학에서 대학별 고사

- 입학사정관제인 AO 입학에서는 지원자의 학업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체능 능력, 리더십,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영역의 능력과 잠재능력을 고려함

- 1990년에 게이오 대학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음

- 게이오대학의 AO 입학 예(박선형 외, 2008, p. 218-219에서 정리)
  - 법학과와 정치학과로 이루어진 법학부의 경우 지원자의 종합적인 능력(지도력, 협동성, 주체성, 사회성, 창조력, 표현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AO 입학전형 도입
  - 서류 전형인 1차 시험과 학부 자체 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성됨
  - 1차 시험: 학업성적, 비교과 특성(리더십, 자원봉사, 국제교류 등)을 자기추천서, 지망 이유서, 조사서, 성장이력서 등을 참조하여 평가
  - 2차 시험: 모의 강의를 1시간 수강한 후 50분 간의 논술 시험을 실시하고, 집단토론,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표 14> 게이오대학 법학과 AO 입학전형의 2차 시험

형식	절차	내용
모의강의 (1시간)	모의강의 후 논술시험(50분) 실시	• 강의주제: 민주주의의 실패(민주주의 정의,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정책결정 특징, 국민연금제도와 청소년,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 • 논술내용: 국민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 실패와 이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방식(형식·글자 수 제한 없음) • 평가기준: 법률학 또는 정치학 습득에 필요한 이해력, 고찰력, 표현력 등
집단토론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집단토론 실시(교수 사회자가 실시)	• 토론주제: 일본사회에서 성인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 평가기준: 이해력, 표현력, 협동성, 자기주장 능력
발표·질의응답 (각 15분씩 30분)	개인발표 실시	• 발표능력: 지금까지의 자신의 활동경력과 입학 후의 목표와 구상을 표현 • 평가기준: 창조력, 구성력, 표현력, 설득력 등

출처: 박선형 외(2008), p.219

- 규슈대학의 AO 입학 예
  -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의 보편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한 범학문적 통합교육과정인 '21세기 프로그램'은 문과·이과 계열별 구분이 없으며, 기존 학부에 소속되지 않음. '국제, 환경·생명, 시민사회, 정보'라는 대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된 개별 지도를 받음
  - 1차 선발과 2차 선발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5> 규슈대학 21세기 프로그램 AO 선발

	선발방식	주요절차	평가내용	비고
1차 선발 (서류 전형)	조사서	조사서 (또는 대신할 서류)	• 출신학교장이 문부성 공식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	입학사정관과 해당학부의 교원에 의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지망 이유서	모집요강에 포함된 용지 이용	• 본인 자필로 작성	
	활동경력 보고서	특징적 활동 경력 진술	• 활동경력 증명 가능 서류	
2차 선발	3종의 강의수강 (150분) & 해당보고서 작성(70분)	지원자는 3종류의 강의를 각각 50분씩 수강한 후 강의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70분 안에 작성	• 강의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 보다 정확하게 깊이 알고 싶은 생각을 얼마만큼 가지는가? • 강의내용을 얼마나 더 발전시켜 생각할 수 있는가? • 설명을 이해하고 잘 실행할 수 있는가?	• 2차 선발은 2일간 이루어짐(첫째 날 강의보고서 작성, 둘째 날 토론·소논문·면접 진행) • 강의내용은 문과/이과 계열 구분 없이 순수학문, 종합학문, 실험학문 분야 등을 조합하여 구성
	토론 (120분)	1집단 10명 정도로 구분되어 3개 강의에 대한 토론 실시	• 강의내용에서 얼마나 발전시켜 생각할 수 있는가? • 남의 비평을 받아 들이고 자신의 주장을 높일 수 있는가? •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유효하게 호소할 수 있는가? • 남의 의견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토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선발방식	주요절차	평가내용	비고
	소논문 (240분)	강의보고서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개의 강의관련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소논문 작성 발표	• 강의내용에 비추어 강의관련주제 설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강의내용에서 얼마나 더욱 발전시켜 생각할 수 있는가? • 토론을 근거로 강의관련 주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가? • 논문으로서 보고서에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면접 (15분~20분)	소논문 작성과 동시에 1인 개인면접 실시	• 이제까지의 학습내용이나 학습 이외 활동 • 학습태도나 사물에 대한 관심의 넓이와 깊이 • 타 대학에서의 면학이나 연구활동에 대한 적성	

출처: 박선형 외(2008), p.222

3) 영국

□ 고등학교 내신성적

○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는 중등교육과정의 내신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중등학교인 7~11학년 과정에서의 평가는 학생의 개별 학습 지도와 학교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됨(박희진 외, 2012)

○ 영국 대입전형 요소로서의 고등학교 내신에 해당하는 것은 중등학교졸업자격 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라고 할 수 있음

○ GCSE는 11학년에 치르게 되며, 이 GCSE의 성적과 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사가 평가하는 코스웍(course work)의 성적을 반영 시켜 A부터 G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5과목 이상 C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GCE A-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 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게 됨

○ 즉, GCSE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대학입학 준비과정인 Sixth Form에 진학하여 대학 준비 교육을 받고 GCE A-level 시험을 볼 수 있게 됨

○ GCSE는 대학 입시라기보다는 중등학교 졸업자가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중등학교 수료자격고사라고 할 수 있음. 시험 과목은 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과목이 포함되나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 과목을 5개~10개 선택하여 시험을 치름

○ 영국의 학교에는 졸업장이 따로 없고 대신 과목별로 취득한 GCSE 자격증이 이를 대신함(이병곤, 2007)

○ 또 다른 내신의 형태는 담임교사의 소견서로 대학 지원 시 담임교사는 200단어 분량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음. 소견서 작성 시 우리나라 추천서와 유사하며, 학생이 지원한 학과 관련 학과목의 학업성취도, GCE A-level에서 예측되는 성적, 잠재력, 지원한 학과 공부에 대한 동기와 헌신, 수상 경력, 분석력과 독자적 사고, 재학 중 직업 실습, 봉사활동, 장래 직업 계획,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요인 및 가정환경,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가 가능성 여부, 영재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활동 참가 내역으로 이루어짐

○ GCSE와 소견서는 단시간의 시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학업 적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됨(김혜성, 2006)

□ 전국 단위 시험

○ GCSE를 치르고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입학 준비과정인 Sixth Form에 진학하게 되면 2년 동안 GCE A-level(이하 A-level) 시험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됨

○ 2년으로 이루어진 Sixth Form의 1년차 과정에서는 GCE AS-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Subsidiary level, 이하 AS-level) 시험을 치르며, 2년차 과정에서는 GCE A-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A-level, 이하 A2-level) 시험을 보게 됨

○ A-level 시험은 언어, 과학, 수학, 인문학 등 80여개의 다양한 교과목 가운에 일부를 수험생이 선택하여 준비 가능함

○ A-level 시험을 위한 교과과정은 모듈(module)제로, 1과목당 1년에 3모듈을 수강하며, 고교 2년간 총 6모듈을 수강함. 대학에서 통상 3과목을 요구하므로 3개 과목을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2년 동안 18모듈을 이수하게 됨. 한 모듈의 단위는 일주일에 한 유닛(unit)으로 90분 분량이며, 한 학기(12주)의 수업량이므로, 하루 평균 3 유닛을 2년 간 학습하는 것임(함석동, 2004)

○ AS-level과 A2-level을 모두 이수한 경우 완전한 A-level 한 과목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이며, AS-level까지 이수하고 A2-level로 연계하지 않아도 As-level 자격증 자체는 독립적인 자격증의 역할을 함(이병곤, 2007)

○ Sixth Form 과정에서는 대개 3과목의 A-level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게 되며, 학교 내부에서 치루어지는 수행평가와 어워딩 보디(Awarding Bodies)에서 시행되는 지필시험으로 나뉘어 있음. 이 때, 지필고사 점수가 70%, 수행평가 점수가 30% 비율로 합산되어 평가됨(이병곤, 2007)

○ 어워딩 보디는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체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학교는 특정 어워딩 보디를 선택하여 선택된 어워딩 보디에서 편성한 교과과정을 가르치게 되며, 문제 출제 및 채점도 해당 어워딩 보디에서 담당하게 됨(김미란, 2009a)

○ A-level 시험은 주관식 문항이 대부분이며 과목별로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5~6시간에 걸쳐 약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학생의 이해능력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 가능함(김상길, 2010)

○ 평가는 점수가 아닌 A*, A, B, C, D, E의 6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AS-level 시험에서는 4과목, A2-level 시험에서는 3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준비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5과목 이상을 준비하기도 함(박희진 외, 2012)

○ A-level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학습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임

○ 보통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경제학과 수학 과목이 필수로 요구되며 그 외 역사나 영어 등의 한 과목을 포함해서 3과목의 점수를 요구함. 수학과의 경우 수학은 요구하나 영어는 필수가 아니며 의과대의 경우 생물과 화학을 필수로 요구함(함석동, 2004)

○ 즉,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2년간 대학 진학 준비를 오롯이 할 수 있으며,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 학과목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Sixth Form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교육과정이 연계됨

□ **대학별 고사** (김미란, 2009a)

○ 명문대학의 경우 대학별 고사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고등학생의 과중한 부담과, 대학별 고사를 허락할 경우 교육의 통제권이 교육부에서 대학의 손에 넘어가거나, A-level 자격증이 노동 시장에서 권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반대함. 그러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와 같은 명문대학은 A-level 시험의 결과를 불신하고 면접 등의 방법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자 함

○ 옥스퍼드 대학 사례

-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인의 첫째는 GCSE, AS-level 및 A2-level 성적

- 두 번째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 세 번째는 교사 추천서

- 시험 성적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함

- 입학 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면접

- 면접은 학과마다 다르며 30분 정도 1명 당 2명의 교수에 의해 면접을 받음

○ 런던대학 사례

- 가장 중요한 입학 사정 요인은 지원자의 성적과 적성

- 교사추천서, 학생의 자기소개서, 과거 학업발달 상황, 상벌 관계 등의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전적으로 학과 교수의 몫임

- 아직 A2-level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7]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소견서를 참조로 1차 선발을 하나, 대부분 지원자의 성적이 최상위급이므로 면접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임

- 면접은 1인당 30분 정도의 개별 면접 형식

7) 영국에서는 AS-level 시험을 치른 후 대학에 지원하게 되며, AS-level 성적을 기준으로 A2-level 시험에서 일정 등급이 나오면 합격시키겠다는 조건부 입학 허가가 나옴. 그 후 A2-level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오게 되면 대학 입학을 결정하게 되고 정원미달이 난 대학의 추가모집도 이루어지게 됨(김미란, 2009a, p.142~3 참고)

3. 적격자 선발

1) 미국

○ 미국의 학생선발은 ▲경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일부 명문대학의 방식과 (전체의 약 20%)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을 시켜주거나, 지원자는 모두 합격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전체 대학의 약 80%)

○ 경쟁이 높은 명문대학일수록 입학사정 시 고려하는 전형요소가 다양하며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전형을, 경쟁이 낮은 대학일수록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공식에 의한 전형을 사용함

□ 대입 경쟁 정도에 따른 구분

○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의 입학유형은 대학의 선택(selectivity)에 따라 개방형(open admission), 기준 이상 합격형(selective), 경쟁형(highly selective)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이러한 분류는 단지 대학의 경쟁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대학의 입학사정 요인을 고려한 분류임(김미숙 외, 2006; 김미란 외, 2009)

○ 개방형(open admission)은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경쟁률이 없으며, 공적 책무를 갖고 교육을 교육기회의 분배나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입학방식으로 지원자를 전원 입학시킴

○ 기준 이상 합격형(selective)은 경쟁이 있어 학생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 선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방식을 지칭하며, 입학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학력 및 자격을 요구함

○ 경쟁형(highly selective)은 대학입학 경쟁률이 매우 심하여, 선별에 있어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방식을 지칭하며 입학 사정 시 학교생활기록과 표준화 시험 성적 및 추천서 등 복합적인 전형자료를 활용함. 주로 명문 사립대학이나 명문 주립대학이 해당됨

○ 경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미국 학생은 전체의 20% 정도임

□ **전형 방식에 따른 구분** (김미란 외, 2009)

○ 미국의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공식에 의한 전형과 판단에 의한 전형인 총체적 전형의 두 방식으로 나뉨

○ 공식에 의한 전형은 고등학교 성적이나 석차, SAT와 같은 표준화 시험 성적이 포함되며, 총체적 전형은 지원서, 에세이, 추천서 등의 학업 외 요소도 포함하는 지원자의 전체 파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 공식에 의한 전형은 시험 점수나 자격 요건을 요구하므로 우리나라 맥락에서 우수 학생 전형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음. 공식에 의한 전형을 채택하는 대학은 주로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책무를 가진 지역사회대학이나 주립대학임. 학생이 교육과정, 등급, 석차, 표준화 점수에서 미리 공표된 조건을 충족시키면 입학이 허가되는 방식(Rigol, G. W., 2003, 김미란 외, 2009에서 재인용)

○ 총체적 전형은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경쟁적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 아이비리그 유명 사립학교 신입생 선발 기준** (정광희 외, 2005)

○ 학문적 재능: 대학이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 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입학 후 학생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인가임. 전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교육내용과 학업성적이라 할 수 있음

○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 고교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적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가지고 AP나 Honor course와 같은 심화코스의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적이 점차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중시함

○ 예·체능 분야의 소질과 능력: 일류대학에서는 학업적 능력 못지않게 예·체능 분야에서의 탁월성을 중요시함

○ 리더십, 품성, 봉사정신: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학급, 지역사회, 교회 등의 단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 어떻게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기록 제출이 요구됨. 대학은 학생이 기록한 과외활동, 상담교사와 교과 담당교사가 평가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지도력과 품성을 평가함

○ 지리적·문화적 다양성: 지리적·문화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전망을 가능하게 해 모든 수준의 교육이 새로운 도전과 관심을 더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다양한 출신의 학생을 다양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함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애교심: 동일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간에는 동문이나 교수의 자녀에게 입학 우선권이 주어짐. 재정적 이유와 학문적 수월성을 지속하고 학교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문들의 재정적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에 의존함.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수 자녀에게 입학 우선권을 줌

○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유명 대학일수록 인종차별 수정조치에 대한 대응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 하버드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흑인계와 중남미계 학생들이 많은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지역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 졸업생의 일정 수를 받아들이고 있음

□ **사례 : Virginia 두 주립대학의 비교** (김미란 외, 2009)

○ Virginia의 두 주립대학인 University of Virginia와 Virginia State University는 같은 주에 있고, 주립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학생 선발에는 상이한 특징을 가짐

○ University of Virginia는 미국 주립대학 중 최상위에 속하며 경쟁률도 높은 반면, Virginia State University는 흑인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는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에 배제되어 온 흑인과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은 대학임

○ University of Virginia의 전형요소

- 고교 내신: 영어 4과목, 대학 준비 과정 수학 4과목과 영어 2과목, 사회과학 1과목, 과학 2과목. 이것은 최소의 요구조건이며 대부분의 성공적인 지원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초과하므로 대학은 지원자에게 매해 5개 이상의 학문적 교과, AP, IB와 Honor course[8]를 포함하여 소속 고등학교에서 가능한 가장 엄격한 학문 프로그램 수강을 권장함

- SAT I 과 ACT 시험성적: SAT I 과 ACT의 성적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시험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시기의 점수만 활용

- SAT II 심화 교과 과정이나 다른 선택 가능한 심화교과 시험의 성적

- 고등학교, 지도자, 대학 상담자 또는 교사로부터의 추천서

○ Virginia State University의 전형요소

- 고교 내신: 4점 만점의 내신성적에서 2.2점 이상, 3개 이상의 수학과목, 3개의 영어과목, 2개의 과학과목, 2개의 사회과목, 2개의 외국어 과목, 2개의 추천서

- SAT 또는 ACT 시험 성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

- 자기 소개서 등의 증빙자료

○ 전형 방법

- University of Virginia는 지원자를 평가할 때 세 명의 입학사정관(reader)이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허가할 것인지 불합격시킬 것인지 논평을 작성

○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입학사정관과 입학처장 및 두 명의 부처장이 최종 평가를 함. 반면 Virginia State University는 입학 상담사(admission counselor)들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이며 사실상 공식을 사용한 전형에 가까움

- University of Virginia의 합격자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10% 내에 드는 상위권 학생들로, 전형요소에서는 심화과목을 요구하고 전형방법에서도 입학사정관이 여러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 반면 Virginia State University는 전형요소가 University of Virginia보다 적거나 낮은 수준을 요구하며, 전형 방법에서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에 대해 일부 추가적 검토만 이루어질 뿐 사실상 공식을 활용한 전형을 채택하는 차이가 있음

8) AP(Advanced Placement): 대학수준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수강하는 것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고등학교 과정 중 하나
Honor course: 정규(regular) 과정보다 어려운 과정으로 우등 혹은 심화 과정을 의미함

□ 사례 : 위스콘신 대학 시스템(UW System)과 위스콘신-매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비교 (정일용, 2013)

○ 위스콘신 주의 위스콘신 대학 시스템(UW System)에는 13개 4년제 대학과 13개 2년제 전문대학 등 총 26개의 캠퍼스가 있음. 이 중 위스콘신-매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은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입학 경쟁률도 높음

○ 위스콘신 대학 시스템 하의 대학은 일정 수준의 고등학교 학점 단위와 SAT 혹은 ACT 성적을 요구하며, 일정 기준 학력 수준을 갖춘 경우 모두 입학시킴

○ 그러나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경우는 예외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학점 단위와 석차, SAT 혹은 ACT 성적을 다른 위스콘신 대학 시스템 대학보다 높게 요구함

<표 16> 2011-2012 입학 기준 이수 학점

단위: 학점, 카네기 학점 단위

과목/구분	위스콘신 대학 시스템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영어	4	4+
사회과학	3	4+
수학	3	4+
자연과학	3	4
상기과목, 외국어 중 선택	4	4
선택	-	2
합계	17	22

출처: 정일용(2013), p.247

2) 일본

○ 일본도 한국처럼 대학 서열이 존재하며 주로 국립대학에 상위권 대학이 많음. 대학 입학정원이 지원자의 수보다 많아 낮은 서열에 위치한 대학은 입학정원 확보에 난관을 겪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치열함

○ 일본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대학에 달려 있으며 국립대학도 센터시험 활용 비율과 과목 선택이 자유로움. 상위권 국립대학일수록 많은 과목을 요구하며 입학시험 비중이 높음

○ 그러나 국립대학은 공평성을 강하게 요구받으므로, 입학시험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견이기에 그 이외의 선발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원치 않음(윤종혁, 2007). 따라서 명문대학일수록 국립대학일수록 입학시험에 의존하는 단순화된 입학전형을 활용하며, 하위권, 사립대학일수록 입학시험보다는 다양한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임

□ 일본의 명문대학

○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입학정원 미달 대학이 증가하고 있음. 중위권 이하의 사립대의 경우 합격한 학생이 입학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입학 정원 보다 합격자 수가 더 많은 등 시험과 선발의 기능이 별개로 작동하는 등 대학 수용력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음

○ 그러나 국립대와 명문 사립대학의 경쟁률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국립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많음. 또한 우리나라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지칭하는 SKY와 같은 용어도 존재하는데 '도쿄 6대학-국립 7대학'과 '국립 난관교'가 그 예임

○ 도쿄 6대학-국립 7대학(윤종혁, 2007)

- 도쿄 6대학은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메이지대학, 호세이대학, 릿쿄대학으로 국·사립을 포함하여 도쿄도에 소재하고 있는 6대 명문대학을 의미함

- 국립 7대학은 도쿄대학, 교토대학, 규슈대학,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도호쿠대학, 나고야대학 등 국립종합대학을 지칭함

- 일본의 대학교육은 이러한 '도쿄 6대학-국립 7대학'이라고 하는 메이저 캠퍼스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

○ 국립 난관교(國立難關校)(윤종혁, 2007)

- '도쿄 6대학-국립 7대학'과 별개로 대학 서열 최상위에 존재하는 대학을 일컫는 단어가 '국립 난관교'로 도쿄대학, 히토쓰바시대학, 교토대학의 3개 대학을 지칭함

- 국립 난관교는 대학입학시험 자체가 어렵고 입학 경쟁이 치열하여 입학이 어렵다는 의미를 가짐

- 국립 난관교 외에도 사립대학인 와세다대학과 게이오대학 역시 서열 최상위에 위치한 대학으로 입학 경쟁이 치열함

□ **국립/사립, 서열에 따른 적격자 선발 차이**

○ 일본의 베넷세 교육종합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학장 및 교수가 생각하는 대학 적격자의 요소는 학문적 자질, 동기, 인간성 세 가지로 나뉨(정광희 외, 2005)

- 학문적 자질은 교과 및 어학 등의 기초 학력, 사고력, 흥미나 관심, 표현력 등을 의미

- 동기는 의욕과 성취동기, 진로의식의 성숙도, 교육이념과의 정합성, 고교에서의 활동 실적, 직업 적성/학부 학과 적성 등을 의미함

- 인간성은 기질과 성격, 행동 특성 및 사회성 등을 의미함

○ 적격자를 선발할 때 대학이 채택하는 방식은 국립/사립대학 여부, 대학 서열에서의 위치에 따라 판이하게 다름

- 사립보다는 국립대학에서, 대학서열이 하위에 있는 대학보다는 상위에 있는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통한 선발을 중시함

- 국립대학 중 서열이 최상위인 도쿄대학과 같은 경우 추천입학이 없으나 서열이 하위에 있을수록 추천입학제를 채택하는 학교가 많음

- 도쿄대학은 센터시험으로 5개 과목 정도를 요구하나 서열이 낮은 대학일수록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시험과목 수는 줄임

- 사립대학은 입학자 선발 방식이 매우 다양함. 서열 상위의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은 추천입학 비율이 높은 동시에 입학시험을 통한 선발 비율도 높음

- 사립대학도 센터시험 결과를 입시에 활용하지만 이보다는 대학별 시험 의존도가 더 높으며, 문부과학성의 다양화 정책에 따라 학업적 요인 외에 소논문, 면접, 예체능 특기 전형, 자원봉사활동 경험 등을 평가 수단으로 채택하는 대학이 증가함

- 입학 선발의 다양화는 국립보다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며, 서열 하위 대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 대학 서열 상층의 국립대학일수록 입학시험을 중시하는 단순화 경향이 있는 반면, 대학 서열 하위권이면서 사립대학일수록 입학시험 이외의 다양한 선발 방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미국의 경우[9]와 반대라고 할 수 있음

□ **사례 : 도쿄대학** (김미란, 2009b)

○ 도쿄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질을 파악하는 지', '선두에 설 용기', '타자를 느끼는 힘'으로 학업적 능력, 리더십, 인성을 두루 갖춘 학생임

○ 입학 당시에는 전공별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과 3류, 이과 3류로 소속되어 2년간 교양교육을 받고 3학년 때부터 10학부 50학과에 진학하게 됨. 따라서 입학자 선발 시에도 문과 1~3류, 이과 1~3류와, 이과 3류(의학과)를 제외한 전과에 진학 가능한 전과류로 나누어 선발함

○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뉨. 전기는 센터시험 총점 기준 지정배율(2.5~4배) 인원을 1차로 선발하고 1차 합격자는 도쿄 대학 독자적 2차 학력시험을 치름. 후기는 센터시험 총점 기준 지정배율(5배) 인원 선발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합격자는 도쿄 대학 2차 학력시험을 보는데 후기의 경우 합격 여부는 2차 학력시험만을 통해 결정됨

9) 미국의 경우 최상위 대학일수록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채택하며, 많은 주립대학과 지역사회대학처럼 개방형 입학정책을 펼치는 대학일수록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공식화된 입학전형 방식(단순화된 방식)을 채택함

○ 센터시험은 문과의 경우 6교과 7과목, 이과의 경우 5교과 7과목을 요구하며, 2차 학력시험은 종합과목1~3으로 영어 능력, 수학 능력, 문화·사회·과학 문제에 대한 논술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의 경우 듣기평가는 센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도쿄대학 자체 시험을 봄

○ 2차 학력시험 출제 시 도쿄대학은 자교의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교-대학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 교육과정) 범위에서 시험내용과 과목 수를 설정함

○ AO 입시와 추천입시는 대입 후 학력저하를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대학 입학시험 과목을 줄이는 추세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평가 과목 수를 늘리고 있음

□ **사례 : 게이오대학** (김미란, 2009a)

○ 게이오대학은 일반 입학과 추천 입학, AO 입학전형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음. 일반 입학이 2008년 12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치열한 반면,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하는 부속고등학교 지정교제도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생 선발 정책이 있음

○ 게이오대학의 가장 특징적인 입학전형은 AO 입학전형으로 지원자의 중학교 졸업 후부터의 학업 및 비학업 성과를 서류 및 면접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함

○ AO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자격은 첫째, 지망 이유와 입학 후의 구상이 명확하고 지망 의지가 강한 자, 둘째, 게이오대학의 학습·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학 후의 목표와 구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기에 충분한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 셋째, 학업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이며 그 성과가 다음 사항의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임

-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창작발표, 콩쿨, 경기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외국어능력이나 컴퓨터기술 등의 기능이 뛰어나며 고도의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

- 사회 봉사활동이나 그 외의 사회활동을 통해 그 성과와 업적을 인정받음

- 학업이 우수하고 창조적, 적극적 학습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학업, 인물 모두 뛰어나며 지역사회와 고등학교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평가를 받고 있음

-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테마에 대해 자유연구나 자주 학습 등, 자발적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 AO 입학전형에서 1차에 합격된 합격자는 2차 면접을 보는데 1인당 30분 정도로 프리젠테이션을 함. 구체적으로는 대학 1학년이 수강하는 모의 강의를 1시간 수강하고, 논술 시험을 50분 동안 본 후, 정해진 주제에 대해 집단 토론은 1시간 동안 하여 개인의 활동 경력과 입학 후의 구상과 목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30분 동안 하게 됨

○ 게이오대학의 입학전형은 철저하게 학부 혹은 학과의 자율에 맡겨짐

3) 영국

□ **영국 대학에서 적격자 선발의 의미와 조건** (정광희 외, 2005)

○ 영국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생 선발이 가장 중요함. 그 외 교육과정에 적합한 능력과 포부를 갖춘 학생 선발도 중요하며, 시험 결과만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잠재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따라서 영국 대학에서 말하는 입학 적격자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보다는 경험과 잠재력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함. 학생의 경험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척도는 다음과 같음

- 학업성적을 포함한 교사의 기록

- 다양한 학생 성취 기록, 즉 학문적, 직업적, 지역사회 기반, 스포츠나 사회성 관련 기록

- 대학교육에 대한 잠재력 검사 등

□ 우수 학생 선발

○ 영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 해당하는 A-level 시험은 현재 상위 그룹의 24% 정도가 모두 A등급을 받고 있어 성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으며,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변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옴(이병곤, 2007)

○ 따라서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을 포함한 명문대학에서는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정부의 반대로 인해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함. 상위권대학에서 심층면접의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례: 케임브리지대학의 우수학생 선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 케임브리지대학은 옥스퍼드대학과 함께 다른 대학에 비해 먼저 입시를 치르는 등 그 위상이 대단함. 이 두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AS-level 성적에 따른 서류전형에 면접시험이 추가됨

○ 서류전형에서는 AS-level 성적으로 평가하는데, 4과목에서 모두 A 이상 점수를 얻어야만 서류전형에서 통과 가능하며, A2-level에서는 3과목 시험 중 최소 요구조건이 1과목 A*에 나머지 과목 A 점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이 가능함

○ 면접시험

- A-level 점수 및 GCSE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이 매우 중요함
- 지원자가 지원한 칼리지[10]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각 칼리지는 학과별로 인원을 배정받아 그 인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함
- 칼리지에 소속된 교원이 20~45분간 진행하며 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잠재능력, 창조성, 독창성 등을 평가함
- 면접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고 A2-level에서 A*, A, A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하게 됨

10)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college)제도는 교사와 학생이 숙식을 함께 하며 공부하는 도제식 방식의 공부 방법을 영위하는 조직으로 소수정예 교육이 이루어짐. 학과는 학생 간 학력 경쟁을 하는 공간이며, 칼리지는 집과 같은 공동체 역할을 함

- 면접 질문 예시
  - 인류는 역사의 실수를 반복할 운명인가?
  - 자기 방어를 위해 국가가 다른 국가와 싸우는 것이 옳은가?
  - 아동 문학이 대학 수준에서 공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 더 나은 뇌를 디자인해보라
  - 리더가 되는 것과 팔로워(follower)가 되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
  - 법이 도덕성을 만드는가 아니면 도덕성이 법을 만드는가?

○ 별도 시험을 요구하는 과와 시험 내용

- 케임브리지대학 지원 시 특정 학과는 학생 인터뷰 실시 전 Cambidge Thinking Skills Assessment Test(TSA) 결과를 요구하기도 함. TSA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학전형자료 중 하나로 90분 동안 선다형 50문항이 온라인 또는 지필 고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험임

- 의학과와 수의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의 과학적 소양과 능력을 평가하는 BioMedical Admissions Test(BMAT)를 치러야 함. BMAT은 지필고사 형태로 선다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의 섹션 1, 2와 4개 에세이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논술하는 섹션 3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역시 별도 시험인 Cambridge Law Test를 치러야 하는데 이는 인터뷰 기간 동안 실시되며 1시간 동안 1개 질문에 답해야 함

4. 초중고 교육방향 설정

1) 미국

○ 미국의 고교-대학 연계의 사례 두 가지 중 하나는 8년 연구이며, 이는 전국 단위의 다수 고교와 다수의 대학이 연계하는 유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약하는 대학 입학 조건을 자유롭게 함에 따라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 사례임

○ 두 번째 사례인 PASS는 주 단위의 실험적 성격의 고교-대학 연계 유형으로 종래의 취득 단위 수나 학업 성적을 대신하여 대학 입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능을 입학 허가의 기준으로 하는 오레곤 주의 대학 입학 허가 시스템임

○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미국 고교-대학 연계의 특징은 오랜 고민과 연구, 관련 기관끼리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고교-대학 연계 사례 1: 8년 연구** (정광희 외, 2005; 강익수, 2009)

○ 1930년 워싱턴에서 열린 진보주의교육협회의 연차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중등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개선의 가장 큰 장애가 대학에서 중등교육에 요구하는 과목과 단위 이수 문제로 모아짐. 당시 미국의 고등학생 여섯 명 중 한 명만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이에 당시 초등학교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진보주의 교육이 중등교육에서도 가능한지, 진보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육에서 성공적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함. 따라서 중등학교와 대학 간의 관계 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채택되어 학교-대학 협력 위원회가 구성됨

○ 위원회에서 8년 연구를 통해 첫째, 중등학교 재구조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학과 중등학교의 관계를 정립하고, 둘째, 실험과 탐구를 통하여 미국의 중등학교가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는 두 가지 기본 목표를 세움

○ 300개 이상의 대학이 중등학교와 연합하여 중등교육과 대학 입시 문제 해결에 동참할 뜻을 밝히며 8년 연구에 참여함. 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학교나 대학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관리자에게 추천받은 학교 중 27개 중등학교와 3개 교육구를 실험학교로 선정함

○ 1933년 가을학기부터 교육과정, 학교조직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8년 연구가 실행됨. 위원회는 학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체 기획, 참여 학교 간의 통일성 수준 설정, 새로운 중등교육 과정 하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될 학생을 위하여 대학의 입학 규정이나 절차를 수정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함

○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 기록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평가 및 기록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고 7년간 약 200여개의 평가 도구가 개발됨

○ 1936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실험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의 양보로 실험학교 출신은 전통적인 대학 입학전형을 거치지 않고 1936년부터 5년간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이 가능했음. 실험 기간 동안 대학은 학교장의 추천서와 학생 기록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함

○ 추천서에는 학생이 대학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업적 능력이 있고, 학업에 관한 관심과 목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는데 이 때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학점이나 시험 점수보다 학생의 활동이 집합된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사용함

○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필검사에 한정되지 않고 관찰기록, 일화기록, 설문지, 면담, 활동 기록, 산출물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또한 대학의 협조로, 선발된 학생 중 같은 성, 나이, 가정 및 지역사회 배경, 학문 성향, 직업 선호가 같은 학생 1,475쌍을 비교 연구하여 제1차년도에서 제5차년도까지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 결과를 출판함

○ 연구 결과, 실험학교 출신 학생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밝혀짐. 실험학교 출신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학교 학생과의 비교에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 더 강했으며, 교과 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8년 연구 보고서에는 대학에서의 성공이 고교의 특정기간 동안 특정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경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학과 중등학교를 모두 만족시키는 관계는 보다 항구적인 기초 위에 정립될 수 있고, 대학과 중등학교 교수진이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시사점이 기록되어 있음

○ 8년 연구는 진보주의 교육을 위한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협약에 의한 연구이며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에서는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지원자가 대학에서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대학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 요구하던 기존의 교과나 이수단위 규정을 면제해 주고 고등학교가 제시한 평가 자료를 충실히 활용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임

○ 8년 연구의 성과

- 대학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과목과 단위수를 풀어줌으로써 고등학교의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했음

- 대학 입학시험 대신 학생의 성취를 기록하여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가능케 함. 대학은 이를 입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입학시험 외 다양한 활동 기록을 학생 평가에 사용하여 기존 입학시험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냄. 또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 방안은 이후 대학 입학 전형자료에 영향을 줌

[그림 9] 미국 8년 연구의 고교-대학 연계 설명

대학측 활동	⇔	대학과의 협력	실험학교와의 협력	⇔	실험학교측 활동
실험학교 출신 신입생 입학허용	⇔	실험학교생의 대학입학 자격 완화를 위한 각종 학칙 검토 및 수정 건의	교육과정 검토	⇔	교육과정의 개선
실험학교 학생에 대한 연구협조	⇔	○ 실험학교 학생에 대한 추후 연구 추진 ○ 1936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연구의 대상이 된 1,475명의 학생들은 모두 4년간 연구됨. ○ 1937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3년 동안, 1938년은 2년 동안, 1939년은 1년 동안 연구됨. ○ 연구진들은 여러 해에 걸쳐 여름방학마다 그리고 1941년 대부분의 시간을 수집된 정보 분석에 할애	학교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조언	⇔	학교 조직의 개편
평가			○ 평가 도구의 개발 ○ 평가 관련 연수 실시감사 구성 기법, 평가도구 활용, 결과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 관련 연수 ○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평가 도구의 검토·개선	⇔	○ 학생에 대한 평가 활동 - 다양한 평가 방법 - 다양한 평가 도구 활용 - 다양한 평가 기록 - 대학에 제출
		8년 연구 관련 5개의 보고서(실험학교 운영 보고서 포함) 출판			실험학교 운영 보고서 기술

출처: 정광희 외(2005). p.70.

□ 고교-대학 연계 사례 2: 오레곤 주의 PASS(Proficiency-based Admission Standards Study) (정광희 외, 2005; 정광희 외, 2010)

○ 오레곤 주에서 숙달(proficiency)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학력관을 도입하여 숙달을 목표로 하는 각종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도록 한 후 대학 진학 시 학생의 숙달기준의 도달수준을 고등학교 교사가 평가하여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숙달은 기존의 취득 단위 수나 학업 성적에 비해 대학 입학에 필요한 각 과목의 구체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종래에는 어떤 과목을 평가할 때 과목명과 성적이 나왔으나, 숙달을 평가하는 것은 과목별로 설정된 기준에 대한 학생의 수준과 깊이를 측정하는 방식임.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 성적 평가 방식보다 더 도움이 됨

- 예를 들어 과학 과목의 경우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안다', '과학 탐구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 이론, 연구를 분석할 수 있다', '과학의 연구 분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OPAS Summit, 2005)

○ 새로운 개념의 입학 허가 기준을 만든 후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서 주립대학의 입학자격인 PASS(Proficiency-based Admission Standards Study)를 신설하게 됨. 이는 기존의 취득 단위 수나 학업 성적을 대신하여 대학 입학에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인 지식과 기능을 입학 허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오레곤 주립대학 기구의 7개 대학에 적용되기 시작함

○ PASS의 숙달 기준은 6개의 내용 영역으로 영어, 수학, 과학, 제2외국어, 예술, 사회과학 영역이 있음. 기준은 6개 영역을 합하여 31가지인데 이 중 입학 필수 기준은 18가지이며 13가지는 장학금 선발이나 AP 등의 특전 부여를 위한 참조의 성격을 가짐

○ 각각의 기준에 필수적으로 복수의 지표가 기술되어 있는데 기준을 참조하여 어떠한 행동 숙달을 목표로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임. 이 지표에 의해 각 기준의 구체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되고, 고교생이나 고교 교사들은 대학까지 어떠한 학습을 해야만 '숙달'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음

□ 기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 대학과목선이수제도(Advanced Placement: AP, 이하 AP) (강익수, 2009)

- AP는 1955년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교양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강좌를 미리 수강하여 대학학점을 고등학교 과정 중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한 대학예비과정임

- AP는 고교에서 대학 교양과정을 학습하게 하여 고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초반 느슨한 입문 편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깊은 전공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도입됨

- 대학교수들도 AP를 거친 학생들이 훨씬 실력이 좋다고 보며 일부 대학에서는 AP 수강 학생에 대해 1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

○ 학생을 캠퍼스로 초청해서 수업하거나 고등학교로 직접 가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고등학생을 위해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UC 버클리대학의 경우, 지역 고등학생 대상 집중과정을 개설하여 1년 정도의 대학 수준 과정을 가르치는데 이 과정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함

2) 일본

○ 일본에서는 고교-대학 연계를 말할 때, '연계'라는 용어 대신에 '연휴', '접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 연휴는 고교와 대학이 상호 연락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에 보다 강조점을 두며, 접속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내용, 교육과정에의 연결에 보다 강조점을 둔 개념임(정광희 외, 2005)

○ 1990년대 이후 대학 입시 다양화와 함께 고교-대학 연계는 일본 대학 입학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중시되었음

○ 2008년 중앙교육심의회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발견하는 방안(선택)과 고등학생이 스스로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상호 선택을 어떻게 꾀할 수 있는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AO입시를 강화, 추천 입시에서 학력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의 개선, 입학자 선발 방침(admission policy)의 명확화, 조사서(내신)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새로운 학력테스트인 '고교-대학 연계 테스트'의 실시 등을 제언하였음(김미란 외, 2009)

○ 이처럼 대학 입시가 기존 대학 일방적 학력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학생의 귀중한 진로 선택의 기회로 고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접속(연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본의 고교-대학 연계라고 볼 수 있음

□ **고교-대학 연계 사례 1: 메이조 대학 인간(人間)학부와 부속고등학교 국제반 -7년 일관 교육과정 운영** (정광희 외, 2010)

○ 메이조대학은 학부정원의 10%를 차지하는 부속고등학교 학생을 고등학교 시기부터 메이조대학에 적합하게 육성하고자 하였고, 인간(人間)학부를 신설하는 시기에 인간학부와의 일관 교육을 전제로 부속고등학교에 국제반을 설치함

○ 국제반 학생은 메이조대학 인간학부에 진학할 것을 전제로 입학하며, 진학 시 필기나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학의 과목을 넣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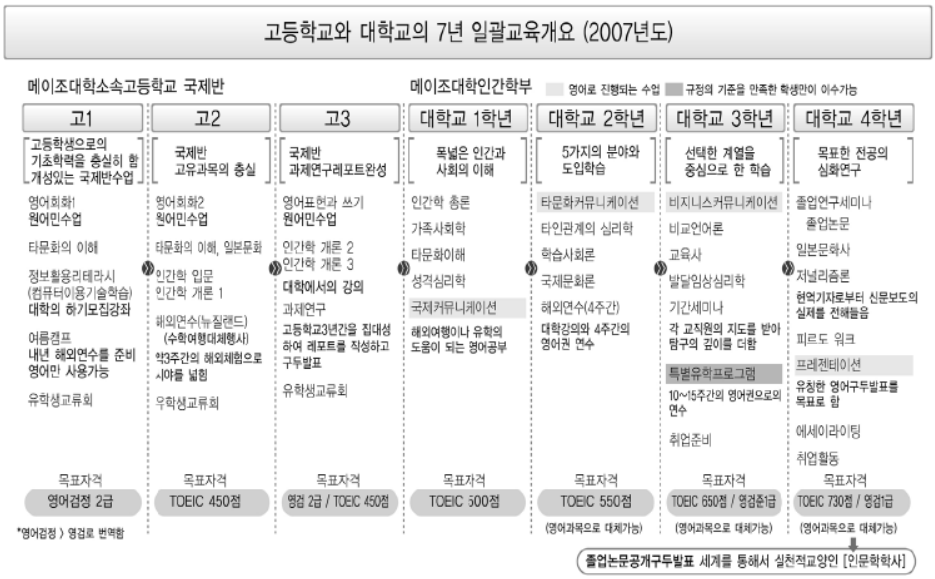
○ 메이조대학의 인간학부는 심리, 교육, 사회,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5분야를 축으로 인간과 사회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는 학부로, 글로벌 마인드 양성을 중시하여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연수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 강의도 일정 부분 수강하게 되는데 대학 공부를 위한 기본적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노트 필기법과 같은 대학 1학년 준비 수업도 있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은 그룹을 이루는 그룹 워크 수업도 있음

○ 대학 입시가 없으므로 학생의 학습 의욕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로 국제반 3학년 과정 중에 '과제 연구'가 설치되어 학생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소논문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데 이 때 인간학부의 교수가 학생을 지도함

○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은 대학 공부에 적응할 수 있으며 부속고등학교 학생이 메이조대학의 중추가 되도록 한다는 초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그림 10] 메이조대학과 부속고등학교의 7년 일관 교육의 개요



출처: 정광희 외(2010). p.149

□ 고교-대학 연계 사례 2: '대학 콘소시엄 교토' (정광희 외, 2010)

○ '대학 콘소시엄 교토'는 대학, 지역사회,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정보 교류, 사회인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하고 이를 통해 대학, 지역사회 및 산업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향상과 그 성과를 지역 사회와 산업계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재단 법인임

○ 고교-대학 연계는 대학 콘소시엄 교토 사업 중 하나로, 타대학 강의를 이수한 것도 졸업 단위로 인정해주는 단위 호환제, 교토 지역 대학과 단기 대학의 강의를 고등학생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배움의 장 등이 있음

○ 또한 교토부 내의 고등학교 및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2003년 이래 매년 고교-대학 연계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현재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일본 내 전국 48개 대학 콘소시엄 중 1/3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대학 컨소시엄의 운영 모델이 되고 있음

3) 영국

□ 대학진학준비반(Sixth Form)과 A-level 시험

○ 영국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인 16세까지의 의무교육이 끝나고 나면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치르게 됨. 이후 대학 진학에 목표를 둔 학생은 대학진학준비반(Sixth Form)으로 진학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반을 택해 공부함

○ 대학진학준비반(Sixth Form)에 진학한 학생은 향후 자신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공부할 전공을 선택해야 함. 이는 대학이 전공별로 요구하는 A-level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임

- 건축학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그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 이를 테면 기하학, 수학Ⅱ, 물리학을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방식임 (이병곤, 2007)

○ 과목 선택은 GCSE 취득 과목 중 적성에 맞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Sixth Form 1년차인 AS-level 과정에서 5과목을 선택해 1년 동안 공부하며 2년인 A2-level 과정에서는 5과목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하게 됨

○ A-level 시험은 2년간 학생의 공부한 결과가 축적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한 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즉, 영국의 경우 Sixth Form으로 진학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향후 대학 진학 시의 전공을 미리 선택해서 2년간 해당 과목을 집중 공부하여 대학 진학에 대비하는 구조임.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음

□ 대학 진학 시의 동일분야 지원

○ 영국은 대입 지원 시 대학별로 응시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학지원청(University and College Admission Service: UCAS, 이하 UCAS)에서 하나의 양식으로 지원자에게 나누어주고 전국의 대학이 UCAS를 통해 일괄 접수함 (함석동, 2004)

○ UCAS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하나의 지원서를 가지고 6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때 6개 대학 선택은 비밀이므로 대학은 지원자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지 모름

○ 이 때 학생은 동일분야에만 지원해야 함. UCAS를 통해 6개 대학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분야는 동일분야로 한정해야 함. 즉, 경제학과 지원 시 6개 대학 모두 경제학 관련 학과여야 함

5. 교육기회보장

1) 미국

○ 입학 사정의 적격성 기준의 원칙[11]에 따라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s) 등 미국의 공립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 최소한의 현장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음

○ 또한 여러 주립대학은 SAT와 같은 전국 단위 입학시험이나 고등학교 성적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이에게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텍사스 주의 경우 취약지구 저소득층, 특히 소수인종의 유수대학 진학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Texas Top 10% Rule'을 유지함. 이는 각 학교에서 내신성적이 상위 10% 내에 드는 학생은 텍사스 내의 어느 주립대든지 원하는 때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정책

○ 기여도 기준(Student Capacity to contribute) 원칙에서도 사회 각 구성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지역의 출신을 우대 선발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하는 등 미국의 대학은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TRIO 프로그램** (김영철, 2011; 남수경, 2009)

○ 미국의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 기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중 대표적인 사례가 TRIO 프로그램임. TRIO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의 고등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산하에 위치한 연방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아웃리치 및 학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TRIO 프로그램은 1960년대 3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는데 1964년의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업보충 프로그램(Upward Bound), 1965년 대학 입학 및 재정지원 정보제공 프로그램(Talent Search), 1968년 저소득층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Student Support Service)임

11) 미국 대학 입학 사정이 원칙은 1장 참고

○ TRIO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세대간 가난의 대물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로 보고, 대학진학에 필요한 학력 및 정보력 제고 정책으로 도입함

○ TRIO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교를 포함한 후기중등교육기관에서 운영됨.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관이 연합하여 연방 교육부에서 정한 기간에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하고 경쟁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관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함

○ TRIO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이 반드시 저소득층과 부모세대에 대졸자가 없는 가정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음

○ 현재는 8개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여전히 최초에 시작되었던 3개의 프로그램이 재정지원 규모나 수혜인원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 업워드 바운드(Regular Upward Bound): 중등교육과정에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뤄내도록 도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수학·과학 업워드 바운드(Upward Bound Math-Science):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강의와 과외활동을 제공하고 이 분야로의 대학 진학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 군제대자 업워드 바운드(Veterans Upward Bound): 퇴역 군인들의 대학 진학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탤런트 서치(Talent Search): 멘토링과 상담, 대학 진학 설명회 및 장학금 정보 제공 등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 획들을 돕는 프로그램

- 교육기회센터(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s): 성인학습자에게 대학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Ronald E. McNair Postbaccalaureate Achievement): 학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석·박사 또는 전문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학생지원 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s):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프로그램

- TRIO 직원을 위한 연수(Training Program for Federal TRIO Programs Staff): TRIO 프로그램 운영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

○ 일반 업워드 바운드(Regular Upward Bound), 수학·과학 업워드 바운드(Upward Bound Math-Science), 군제대자 업워드 바운드(Veterans Upward Bound) 프로그램은 학업관련 활동과 비학업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학업관련: 대학준비과정에서 학업 능력 향상을 도움. 학기 중 튜터링과 상담이 진행되며, 여름방학에는 6주간 집중적인 학업보충 프로그램이 진행됨

- 비학업관련: 학업관련 활동을 보충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각종 시설 견학, 대학 캠퍼스 투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보취득과 지원서 작성에 대한 도움 등이 있음

○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 업워드 바운드(Regular Upward Bound) 프로그램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2011년 기준 777개 기관의 수혜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수혜자인 학생은 총 5.3만 명에 이름. 기관 당 약 7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관 당 예산지원규모는 평균 33만 달러 수준이며, 학생 한 명당 지원예산 규모는 약 4,800달러로 추정됨

○ 탤런트 서치(Talent Search)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장벽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학업지원(모의시험 실시, 공부 기술 지도, 학업 자문 등), 경력 개발(대학 캠퍼스 방문, 대학 추천서 작성과 상담 등), 재정지원(개인별 재정지원 상담 등)이 있음

○ 탤런트 서치 프로그램 참여 기관의 규모는 아래와 같음

- 선정 경쟁률은 3대 1 정도

- 2011년 기준 수혜기관의 수는 464개, 이에 따른 수혜인원은 대략 36만명. 한 기관당 수혜인원이 780명에 이름

- 기관당 예산지원규모는 약 30.5만 달러 수준이며 학생 한 명당 지원액은 약 400달러로 추정됨

○ 교육기회센터(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s)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을 제공함. 세부 내용으로는 학업 자문, 진로 워크숍, 학생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이 있음

○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Ronald E. McNair Postbaccalaureate Achievement)은 주로 학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도록 지원함.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대학원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학문적 활동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함

○ 학생지원 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s)는 업워드 바운드 프로그램과 탤런트 서치가 대학 준비와 입학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TRIO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업워드 프로그램은 교육적 기대치가 높은 참여집단의 학위취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참여기간이 길수록 고등교육기관 등록률 및 학위취득률이 높았음. 또한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상급학위 취득과 취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주립대학 지역 출신 성적 우수자 자동 입학** (양성관 외, 2007)

○ 미국의 많은 주립대학은 일정 비율의 상위권 학생을 자동입학시킴으로써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음. 그 예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상위 4%, 텍사스는 10%, 플로리다 주는 상위 20% 학생들을 자동으로 입학시키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는 상위권에 속한 학생이 선택한 대학에 꼭 갈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반면 텍사스 주는 모든 주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줌

- 캘리포니아 주는 대신에 UC 계열의 대학이 상위 4% 학생에게 선발과정에서 가산점을 주어 입학결정 과정에 고려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 소재 학교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대함

-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상위권 학생 선발이 가능한 것과 달리, 플로리다 주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만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는 학생의 석차를 계산하는 주체가 학교나 교육청인 반면에 캘리포니아 구에서는 대학이 최종 결정함.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음

○ 같은 주립대학이고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이는 교육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결정권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며,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기회보장법과 같은 법률적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 대입 운영에는 실질적인 자율성을 누리기 때문임

□ **차별적 평준화정책: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김영석, 2004)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은 공립대학이 추구하는 평등주의의 이상과 능력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기에 차별적 평준화[12)]정책이라 말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의 시스템은 총 세 개의 계층화된 대학으로 나뉨

- 9개 캠퍼스를 가진 University of California(UC)

- 23개 캠퍼스를 가진 California State University(CSU)

- 109개의 2년제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CCC)

○ 이와 같이 계층화된 세 개의 대학시스템이 각각 하나의 지배기구 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각각의 대학체제에 학업준비도를 기준으로 각각 일정한 규모의 학생을 할당하는 방식임

- UC는 캘리포니아 소재 고등학교에서 상위 12.5%(상위 4%일 경우는 수능 시험 없이 입학 허용), CSU의 경우는 상위 33.3%의 학생들에게 자동입학권을 부여하고 학업 준비가 안 된 나머지 학생들은 일단 커뮤니티칼리지에 배정한 후 다시 상급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12) 차별적 평준화 정책: 모든 사람에게 입학의 문이 열려 있으나 일부 상위 대학에서 선별적인 신입생 선발을 하는 등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를 함께 실시하는 정책

- UC나 CSU 등의 상급대학에서는 학생선발 시 40~60%를 하급대학에서 올라오는 편입생으로 충원하도록 정해놓아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상급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상위 12.5%를 판단하는 기준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협의회에서 개발한 적격성 지표를 활용하는데,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은 높은 SAT 점수를 제출해야 하며, 내신성적이 높은 학생은 그만큼 SAT 점수가 낮아도 됨

- 이런 시스템은 고등학교에 대한 내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능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함

○ 적격성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 상위 4% 이상의 학생은 SAT 점수가 없어도 입학이 허용됨

- SAT 점수가 매우 높은 학생도 고등학교 내신에 상관없이 입학이 허용됨

-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내신과 수능에 관계없이 선발되며 입학생의 6% 정도임

○ 캘리포니아 주 학생선발방식의 함의

-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 학생도 백인 중산층이 아닌 자신들끼리 경쟁하므로 대학입학의 기회가 비교적 많이 보장됨

- 고교내신의 비중이 높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됨

- 상위 4% 학생에게 자동입학자격을 부여하되 조기입학사정을 통해 이들을 확보함으로써 명문 사립대학으로 학생을 유출시키지 않음

- 지원자를 모두 입학시키는 개방적 입학체제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면서도 이에 준하는 평등주의적 효과를 거둠. 캘리포니아 주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하급 대학으로 보낸 후 편입의 기회를 주어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기 때문에 보충학습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음

2) 영국

□ **영국의 공정진학국** (김영철, 2011)

○ 영국의 공정진학국(Office for Fair Access: OFFA)은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유수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성을 지닌 정부기구임

○ 영국은 2006~2007학년도부터 기존의 등록금제도를 기본 수업료와 대학의 추가 재정 요소를 부담하는 추가수업료로 개편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본수업료가 1,345 파운드, 추가수업료는 최대 3,375 파운드 수준으로 정해짐

○ 기본수업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추가수업료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제적 취약 계층의 대학 진학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정진학국이 설립됨

○ 공정진학국의 사업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진학률 개선
- 이를 위해 대학의 지속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 및 장학금 프로그램 확충 유도
- 장학금제도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기회형평성의 증진

○ 이와 같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진학 목표제를 도입

- 각 대학이 공정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정진학 목표가 공정진학국을 통해 승인될 경우에만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추가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
- 공정진학국은 공정진학 목표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수업료 징수 제한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함

○ 각 대학의 공정진학 목표에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 사회경제적 취약 지구 학생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입학 비율 설정 등을 포함함

-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의 공정진학 목표(2009년 작성)는 2011년까지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입학비율을 12~15%까지 늘리고, 공립학교 출신 입학 비율을 50%~60% 초반대로 늘린다는 내용

- 런던정경대의 2009년 공정진학 목표 역시 2011년까지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비율과 공립학교 학생의 입학 비율을 각각 5%p까지 증대시키는 것

3) 프랑스

□ **입학 개방성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분류** (김경근, 2004)

○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에 있어서 개방성에 따라 구분됨. 일반대학은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거의 자동으로 입학이 보장됨. 전문대학과 그랑제꼴은 시험이나 서류상의 선발 절차를 거침

○ 그랑제꼴은 고급 관리, 경영자, 최고 엔지니어 등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입학을 위해서는 바칼로레아 합격자 중 최우수 학생들이 2~3년간 준비반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한 후 시험에 통화해야 입학이 가능함. 전문대학은 선발 절차가 있긴 하지만 개방적인 편이라 볼 수 있음

□ **프랑스 대학의 개방성** (김경근, 2004; 정일용, 2013)

○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전부터 교육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남에 따라 교육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 1959년에 의무교육을 16세까지로 연장하며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학교에도 국가 재정보조를 받는 대가로 교육과정, 학급 조직 등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확충함. 1989년에는 학령기 인구 100%를 최소한 실업계 고교 졸업, 80%를 바칼로레아 합격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고 직업 바칼로레아 신설, 전문대학 신설 등에 박차를 가하기도 함

○ 일반대학은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칼로레아만 합격하면 입학이 허가되며, 거주지에 따라 입학생을 배치함

○ 또한 바칼로레아 분야와 관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자 함

○ 이런 이유로 프랑스 대학 입학생의 입학 당시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함. 하지만 프랑스의 대학교는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반대학의 졸업률은 30~40% 수준으로 그랑제꼴 졸업률이 90%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음

○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의·치대의 경우 바칼로레아는 일반 바칼로레아든 기술 바칼로레아든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대학은 수용범위 내에서 많은 학생을 입학시킴. 그러나 1학년 말에 2학년 진급시험을 보는데, 정부가 2학년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 중 20~30%만 진급이 가능함 (정일용, 2013)

○ 즉, 프랑스 대학입학은 바칼로레아 합격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전공과정으로의 진입이 1/3 정도에만 주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엄격한 학사 관리로 졸업이 까다로워 신뢰를 가짐

6. 소결

○ 이상의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학생선발 시 학업성취능력을 중시 하지만 유일한 요소이거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음**

○ 미국, 일본, 영국 모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 입학 후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 중시. 따라서 전국단위시험, 표준화된 시험, 고교 내신 중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 사례에서 특징적인 차이는 성적을 중시하되 유일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임

- 특히 미국의 경우 소위 명문대학일수록 다양한 전형자료 요구. SAT 등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 고등학교 내신성적 외에도 자기소개서, 추천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 이 때 학업과 관련한 성적을 기계적으로 산출하지 않음. 대학 입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반영. 이를 테면 가난한 지역 학생의 50점과 부유한 지역 학생의 50점을 다르게 평가

- 일본의 경우도 일반입학제도에서는 센터시험 성적이 중요하지만 명문대학일수록 대학별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며, 추천입학 및 AO입학제도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소논문,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 요구

- 또한 내신성적을 반영할 때도 미국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성적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음. 학생이 고교시절 어떤 과목을 수강해왔는지, 심화학습을 했는지, AP과목을 이수할 정도로 해당 전공에 대한 호기심과 목적의식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앞으로 대학에서 할 공부를 소화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

○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획일적인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발견됨.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센터시험의 과목 선택은 대학 자율임과 동시에 대학 내에서도 학부와 학과에 따라 요구하는 과목이 달라 학생이 그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음. 영국에서는 대학진학준비반인 Sixth Form에 진학하여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며 A-level 시험 과목은 학생이 대학에서 향후 선택할 전공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모두 다름.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성적별로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를 시킬 수가 없음

○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내고 등수가 매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우수하면 우수 학생이고 좋은 대학을 간다는 공식이 생기게 됨. 반면 사례로 살펴본 국가들에서는 학생이 모두 다른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등수로 서열을 매길 수 없을뿐더러 성적이 대학 입학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음

□ **대입 준비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게 됨**

○ 미국, 일본, 영국 대학은 대입 준비를 하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때 가능함. 즉,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가 중등학교 교육을 비정상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에 눈여겨 볼만한 점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을 볼 때 'A' 과목의 점수가 100점, 'B' 과목의 점수가 90점이라는 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고등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심화 과정(Honor course, AP)을 선택하여 지적 호기심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평가

- 즉 대학에서의 전공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일반~심화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됨. 또한 비교과 활동도 중시하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활동, 봉사 활동, 예체능 활동도 하게 됨

○ 미국의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노력 중 8년 연구의 사례를 볼 때 1930년대라는 과거 상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 간 상호 협정을 통해 8년 간 꾸준히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입학전형요소를 변화시키는 노력

- 단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교-대학 연계라는 구색만 갖추기보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고민, 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수행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례로 보임

○ 일본에서는 대학의 '선발' 개념을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접속' 혹은 '연휴'라는 개념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이에 따라 다양한 고교-대학 간 연계 방법 강구

- 단순히 입학 상담이나, 전공 소개에 그치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또한 도쿄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때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학이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항상 숙지하는 모습을 보여줌

○ 영국에서는 Sixth Form의 목적이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이며, Sixth Form에 진학하게 되면 향후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A-level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과정과 연계

□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입학 기회 제한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면접과 같이 한 번의 시험에 따라 대학진학 결정.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그리고 일본의 추천입학과 AO 입학의 경우 한 번의 시험성적이 대학입학 기회를 제한하지 않음

○ 미국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으로 특정한 시험의 성적만을 요구하기보다는 SAT나 ACT, IB 등 여러 선택 사항 제공. 또한 표준화된 시험 성적이 유일하거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라기보다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고교생활, 리더십활동,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정하므로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영국의 경우도 Sixth Form이라는 체제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A-level 준비과정인 2년간의 모든 공부가 성적으로 이어지며 포괄적으로 입학사정의 고려요소가 됨

○ 일본의 추천입학과 AO입학은 고교생활이 입학사정에서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되므로 센터시험 성적이 없어도 고교생활의 충실성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대학 진학이 가능함

○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사례 국가들의 시험은 객관식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주관식 문항, 에세이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암기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또한 시험 응시기회에 있어서도 1년에 하루 한 번이 아니라 기간이나 횟수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수험생의 부담 경감

□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에서도 대학이 학생선발에 자율성을 가짐

○ 사례 국가들의 대학에서 입학전형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에게 과목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임. 학생선발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그리고 대학 내의 학부와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학생선발 가능

- 미국의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별로 다양하고 주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요구하는 전형요소의 종류 및 수준이 다름. 주립대학은 주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학생 선발에는 자율성이 보장됨

- 일본에서도 국립대학은 센터 시험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대학에서, 학부와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수와 과목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김

- 영국에서도 학생 선발의 최종 주체는 학과 교수로, 국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고등교육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병곤, 2007)이지 학생 선발의 권한은 대학에게 있음

○ 국가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학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어려우며, 획일적인 입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Ⅳ. 대입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1. 미래 인재상과 대입제도

□ 대입제도에서 인재상의 필요성

○ 대입제도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반영·내포

○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이 바뀌면 대입전형 변화되어야 함

○ 대입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수방식과 학생의 학습방식, 학부모의 유도·지원방식의 변화 유도

- 때문에 정부와 대학은 대입제도를 통해 선발·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분명한 상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인재상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러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타당한 대입전형을 개발·적용해야 함

□ 우리 교육과 대입제도에서 지향해야 할 미래인재상

○ 과학적인 분석능력과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창의인재

○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지니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학습인재

○ 꿈과 끼, 잠재력, 강점을 키워 자신의 진로와 행복을 개척하는 행복인재

○ 핵심역량, 취업·창업역량을 지니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인재

○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는 실용인재

○ 훌륭한 지혜와 인성을 갖추고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지혜인재

2. 대입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 원칙

○ 타당성 : 전형요소와 방법이 창의인재, 행복인재, 학습인재, 역량인재, 실용인재, 지혜인재를 타당하게 측정

- 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를 바탕으로 창의성 등 핵심역량 측정

- 특히, 모집단위에 적합하게 꿈과 끼, 잠재력, 강점을 키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지 측정하여 선발

○ 공정성·형평성 :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나 기부, 기여 혹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의 역량을 공정하게 측정하여 선발. 나아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입전형에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차별정책 반영

○ 교육가능성 :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대입전형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의 교수-학습-평가를 인재상과 대입전형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유도·촉진

○ 미래지향성과 발전지향성 : 인재상, 대입제도, 이를 위한 공교육의 교수-학습-평가가 학습자 개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충분히 담보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제도의 지향점

○ 공교육의 목표-인재상-대입제도 간의 내적 일관성 형성·유지

- 국민 전체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목표 수립

-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기반 위에 창조의 기초인 차별화·개성을 강조하는 교육개혁 설정

- 교육목표는 우리사회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대입제도를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 속에 내포되도록 유기적 연계 도모

○ 창의인재, 행복인재, 학습인재, 역량인재, 실용인재, 지혜인재 선발과 양성 유도

○ 대입전형의 타당성 제고 : 대학이 대학수학 적격자 선발,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진학 계열의 연계 확대

○ 사회 통합 지향 : 계층간 대물림 방지를 위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 진정한 고교교육 정상화 : 참다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혁신, 개개인의 잠재력·강점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특성화교육 촉진, 참된 학업성취 향상

○ 사교육 축소와 사회적 형평성 고려 : 학교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현실적 분석

○ 대학 자율성과 사회적인 합의 함께 존중 : 자율화하되 사회적 요구와 합의 존중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 병행**

○ 대입제도 개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상설 독립기구 설치

○ 비교육적 경쟁 완화를 위해 능력중심사회 구축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정착

-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확립

- 생애단계별 학습복지 실현

- 진로코칭 지원

3. 대입제도의 비전과 목표

□ **미래형 인재선발을 위한 대입제도의 정책비전**

○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 **미래형 인재선발을 위한 대입제도의 정책목표**

○ 창의인재, 행복인재, 학습인재, 역량인재, 실용인재, 지혜인재의 선발과 양성 촉진·유도

-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로 전형의 타당성 제고

○ 대입 공정성·형평성 제고 : 학습자의 역량에 근거한 공정한 선발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대학 진학사다리 구축

Ⅴ. 대입제도 개선방안

○ 미래형 인재선발·양성에 적합한 대입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자체의 개선과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 그동안 시도되었던 여러 개선안이 실패한 이유는 대입제도만 개선하여 그 문제해결 도모했기 때문

○ 우리사회의 여러 교육문제와 사회현상이 중첩되어 있는 대입제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취업·승진 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 확립 등의 조치가 동반되어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입제도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수반되어야 할 사회제반의 노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함

1. 전형요소의 개선

1) 창의성 등 미래역량 측정하는 시험으로 수능의 성격 전환

□ 목적

○ 수능이 사고력 측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양성 견인

○ 교과서 개념과 원리 중심(교과서 100%) 출제, 사고력 중심 출제 지향

□ 필요성

○ 지금의 수능이 난이도나 출제오류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부 등 다른 전형자료에 비해 여전히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선발 도구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수능은 교과별 학력검사라는 현재의 성격에서 벗어나 내신과 다른 것을 평가해야 함

- 현재의 수능은 내신과 거의 같은 내용 평가. 특히 학생부와 면접이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현행 대입제도에서 수능의 현재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전형요소가 중복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수능의 성격을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사고력과 미래역량 측정으로 전환

- 창의성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주관식(논술형) 시험 도입 고려

□ **추진과제 1 : 수능-EBS연계 정책 전면 개선**

○ 수능-EBS 특정비율(현재 70%) 연계방침 폐지

- 연계방식은 직접연계만이 아니라, 직·간접 연계 모두 포함하여 출제

○ 교과서 중심 수능-EBS 연계 구조 형성

- EBS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 표 등을 활용한 출제 지양

-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학교수업과 EBS 교재·수업을 통해 학습하면 수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

□ **추진과제 2 :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 적정 난이도 유지해 적절한 변별별 확보

- 시험이 변별력을 잃으면 우수한 학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또 다른 불공정한 상황 발생할 수 있음

- 지금처럼 수능이 대입에서 핵심적인 필터 기능을 한다면 적정 수준의 난이도와, 비교육적이기는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 유지 필요

□ **추진과제 3 : 사고력, 창의성 등 미래역량 측정 문항**

○ 수능 출제는 교과지식 암기능력 측정이 아니라 고급사고력, 특히 창의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

○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고급사고력, 특히 창의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전환하도록 촉진

○ 일부 교과에서 제한적인 비율로 서술형 문제 출제

2) 수능 선택과목으로 공동논술 도입

□ 목적

○ 논술 출제의 일관성 유지, 고교·EBS에서의 수월한 대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사교육비 경감, 대학 논술업무 경감

□ 필요성

○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고사는 출제경향과 평가기준, 난이도 모두 다름

○ 그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 개별 대학의 논술고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 거의 불가능

○ 이는 대입준비를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어 사교육비 증가와 선발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 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추진과제 1 :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대학별 논술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논술로 전환**

○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논술제도 도입

○ 대학별 논술 준비 중인 학생을 고려하여 3년 예고제 실시

<표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논술 추진방안 개요

구분	내 용
문제출제	**고교교사** + 교육과정전문가, 교수
출제범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평가	**고교교사 (평가기준 근거 평가, 복수)** ▸ 평가기준 : 대교협과 협의하여 마련
구분	**공통교양논술(논술응시자 전원) + 계열별 논술** ▸ 계열별 논술은 선택응시, 복수응시 허용
반영	**논술등급 반영 여부는 대학 자율** (점차 반영 확대 권장)
응시	**논술반영대학(계열) 지망 학생**
비용	**실비의 1회 응시료** (또는 무료)

□ 추진과제 2 : 논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동반

○ 초중고 교육과정에 논술 반영

- 초중고 교육 내에서 논리적 글쓰기 교육 보편적으로 시행

- 학생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 선행되어야 수능 수준에서 논술 도입 가능

○ 교대·사대 교육과정에 논술교육 반영

- 고등학생을 직접 가르친 고교 교사가 출제·채점 가능해야 하므로 대학의 교직과정에 논술교육 반영

3) 내신평가 개선

□ 필요성

○ 학생부 실질반영률 확대와 내신 9등급상대평가제로 인해 학생 간 비인간적인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내신성적을 둘러싼 부정 사례 일부 증가

○ 학생부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 사교육비 증가

○ 향후 계층간 학업성취 격차 심화 가능성 : 3년 내내 주요 교과를 대비하는 내신 대비 사교육 비용 증가로 상류층에 유리한 전형

○ 고교등급제 논란 유발 :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 문제와 이를 둘러싼 고교등급제 논란 유발

○ 학교 간, 교사 간 창의적인 교육경쟁 노력 저해

- 상대평가는 같은 학교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만 비교하는 평가이므로, 교사가 다른 학교보다 교육을 잘하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도 그 노력의 결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그래서 학생만 경쟁하는 평가 방식이지 학교와 교사는 전혀 창의적인 교육 경쟁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평가임

○ 상대평가9등급제보다 더 심각한 내신점수와 사교육 경쟁 우려

- 학생부에 내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수강자수를 명시할 경우, 대학이 원점수나 절대평가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통계프로그램으로 표준점수 또는 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활용할 것임

□ **추진과제 : 절대평가 성격의 성취평가 정착과 부풀리기 방지**

○ 성취평가 정착

-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9등급제 병행 정책은 단계적으로 종료

-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정착 추진 :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추진, 성적통계를 이용한 대학의 '석차백분율 도출 금지'

○ 부풀리기 방지

- 공식 성취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매뉴얼 개발 적용

- 절대평가 성격의 성취평가제 실시 시 나타날 부풀리기 강력 방지

- 부풀리기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학업성취 조사도구 개발, 적용

- 객관적 학업성취에 근거한 부풀리기 판별과 시정조치 법제화

4) 학생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가. 진로맞춤형 대입전형

□ **목적**

○ 진로(전공·모집단위)별 맞춤전형으로 학생 꿈 키우기 지원

○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여 모집단위에 적합한 학생 선발을 통한 선발의 타당성 제고

□ 필요성

○ 현재 대입전형은 지나치게 국영수 중심

- 이러한 전형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심각하게 왜곡. 특히 사회와 과학 탐구 교육과정 축소, 교원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야기

○ 국영수 중심의 대입전형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 적성, 강점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진로 기반의 대학진학 심각하게 저해

- 모집단위 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선발하기 어려우며, 진학 후에도 전공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교육과정 자율을 더 많이 가진 특목고와 자율형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고교 간 격차와 서열화 야기

○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대입전형을 통해 추구하는 창의인재, 행복인재, 학습인재, 역량인재, 실용인재, 지혜인재의 선발과 양성 저해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영수의 반영비중을 줄이고 아래에 제시된 모집단위별 중요 선수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표 18> 모집단위별 중요 선수과목

유형 구분	모집단위(계열 또는 학부) * 아래는 예시									
	인문	사회 과학	상경 (경제 경영)	국제 외국어	교육 사범	자연 (기초 과학)	공학	의약 생명 보건	예술 (음악 미술 공연)	체육 스포츠
학과 구분 (예시)	국문, 문학, 한문, 역사, 철학, 인류학, 종교 등	법, 행정, 사회, 언론, 심리, 지리, 관광, 복지 등	경영, 경제, 무역, 금융, 회계, 보험, 물류, 비서 등	외국어 (어문), 국제학, 정치 외교 등	유아, 아동, 초·중등, 특수 교육 등	수학, 통계학, 물리, 지구 과학, 화학등	건축, 운송, 건설, 도시, 기계, 금속, 소재, 컴퓨터, 전자, 섬유 등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 임상 병리, 물리 치료, 보건 등	미술, 디자인,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체육, 스포츠 의학/ 운동 처방, 스포츠 산업/ 경영, 경호/ 무도 등

유형 구분	모집단위(계열 또는 학부) * 아래는 예시									
	인문	사회 과학	상경 (경제 경영)	국제 외국어	교육 사범	자연 (기초 과학)	공학	의약 생명 보건	예술 (음악미술 공연)	체육 스포츠
중요 선수 교과목 [대교협 매뉴얼]	역사, 국어, 영어, 윤리, 정치·경제, 한문, 법·사회	영어, 제2 외국어, 정치・경제, 역사, 국어	정치·경제, 법·사회, 영어	정치·경제, 법·사회, 역사, 국어, 영어, 지리, 윤리	윤리, 역사, 국어, 영어, 법·사회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수학, 화학, 영어, 공업, 국어	생물, 화학, 수학, 영어	예술, 역사, 국어, 영어, 윤리	체육, 윤리, 국어, 영어, 역사

자료: 홍후조(2012). 일반고등학교 진로집중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모집계열별 선수과목에 대한 연구내용을 반영함.

□ 추진 과제 1 : 계열·모집단위별 타당성 제고

○ 계열·모집단위별로 학생부와 수능 탐구과목 중 필수과목 지정하여 진로맞춤형 학습 유도

- 모집단위별 진로맞춤형전형을 도입한 대학은 추가 재정 지원 확대

○ 모집단위별 필수과목 제시

- 모집단위별 주요 필수과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매뉴얼로 권고. 이를 통해 대학별 간소화에서 더 나아가 전체 대학의 모집단위별 간소화 추진

○ 국영수 중 모집단위별 필요에 따라 2과목 반영 권장

- 국영수의 반영비중 50% 이내로 축소, 국영수 중 2과목 반영 권장

- 현재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국영수 교과목 비율은 50% 이내이기에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필요

- 모집단위 특성상 국영수 교과목 학업성취가 필요한 모집단위는 적용 배제

○ 전공계열·모집단위별 공동논술 도입

○ 대입전형 분권화·자율화 : 현재 대학본부(입학처)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선발 권한을 학부(모집단위) 단위로 분산(점진적인 분산)하여 모집단위의 선발권과 전형역량 증진

<표 19> 진로맞춤형 대입제도 구축 방안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유형
구분</th><th colspan="10">모집단위(계열 또는 학부)</th></tr>
<tr><th>인문</th><th>사회
과학</th><th>상경
(경제
경영)</th><th>국제
외국어</th><th>교육
사범</th><th>자연
(기초
과학)</th><th>공학</th><th>의약
생명
보건</th><th>예술
(음악
미술공연)</th><th>체육
스포츠</th></tr>
<tr><td colspan="2">학과
구분
(예시)</td><td>국문, 문학, 한문, 역사, 철학, 인류학, 종교 등</td><td>법, 행정, 사회, 언론, 심리, 지리, 관광, 복지 등</td><td>경영, 경제, 무역, 금융, 회계, 보험, 물류, 비서 등</td><td>외국어 (어문), 국제학, 정치 외교 등</td><td>유아, 아동, 초중등, 특수 교육 등</td><td>수학, 통계학, 물리, 지구 과학, 화학 등</td><td>건축, 운송, 건설, 도시, 기계, 금속, 소재, 컴퓨터, 전자, 섬유 등</td><td>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 임상 병리, 물리 치료, 보건 등</td><td>미술, 디자인,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td><td>체육, 스포츠 의학/ 운동 처방, 스포츠 산업/ 경영, 경호/ 무도 등</td></tr>
<tr><td colspan="2">중요
선수
교과목
[대교협
매뉴얼]</td><td>역사, 국어, 영어, 윤리, 정치·경제, 한문, 법·사회</td><td>영어, 제2 외국어, 정치·경제, 역사, 국어</td><td>정치 ·경제, 법· 사회, 영어</td><td>정치·경제, 법·사회, 역사, 국어, 영어, 지리, 윤리</td><td>윤리, 역사, 국어, 영어, 법·사회</td><td>물리, 화학, 수학, 생물, 지구 과학</td><td>물리, 수학, 화학, 영어, 공업, 국어</td><td>생물, 화학, 수학, 영어</td><td>예술, 역사, 국어, 영어, 윤리</td><td>체육, 윤리, 국어, 영어, 역사</td></tr>
<tr><td rowspan="6">수시</td><td rowspan="3">논술
위주
전형</td><td colspan="10">공통교양 논술 : 논술을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모두 응시
(대학별 논술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논술’ 형태)</td></tr>
<tr><td>인문
논술</td><td>사회
논술</td><td>상경
논술</td><td>국제
논술</td><td>교육
논술</td><td>자연
논술</td><td>공학
논술</td><td>생명
논술</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colspan="8">계열별로 복수 응시 가능(대계열로 계열수 축소 가능)</td></tr>
<tr><td>학생
부
위주
전형</td><td colspan="10">공통 선수과목(국영수와 한국사 중 2-3과목) 반영 (국영수 반영비율 50% 이내)
모집단위별 필수 탐구과목(1-2) 및 선택과목(1) 반영(중요 선수교과목 중 선정)</td></tr>
<tr><td>학년별로 반영 비중 조정 가능(예시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외국어와 수학과학 특기자는 국제계열, 자연공학계열 등에 적용</td></tr>
<tr><td>실기
전형</td><td colspan="10">예체능 실기전형
(특기자전형처럼 특목고나 특정 자사고 졸업생 특혜 철저 방지)</td></tr>
<tr><td>정시</td><td>수능
위주
전형</td><td colspan="10">공통 선수과목(국영수와 한국사 중 2-3과목) (국영수 반영비율 50% 이내)
모집단위별 필수 탐구과목(1-2) 및 선택과목(1) 반영(중요 선수교과목 중 선정)
외국어와 수학과학 특기자는 국제계열, 자연공학계열 등에 적용</td></tr>
</table>

출처 : 홍후조(2012)의 중요 선수과목 연구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조화

□ 추진과제 2 : 학생 희망과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 허용

○ 학생 희망,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

-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목을 학교 단위가 아닌 학생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진로맞춤진학지도를 위한 진로맞춤 교과목 이수 유도·촉진

- 탐구 과목 중에서도 모집단위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 이수를 방지하고 전공 맞춤 학습과 진학 유도

- 재학 중 진로진학상담 시 모집단위 연계 교과목 선택을 유도·촉진

○ 비교과 창의적체험활동에서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고려

○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전공적합성) 중심 면접평가 준거설정

- 현행 면접 평가기준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을 통해 고등학교와 입학 희망 학생에게 모두 공개

나. 고른기회입학전형, 지역인재전형 확대

□ 목적

○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저소득층 학생의 개인 성장, 계층 상승을 지원하는 진학사다리 구축(적극적 차별정책)

□ 필요성

○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가 일정정도의 성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 되면서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 제기

○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우려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의 문제

- 타당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선발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교과외 활동에 대한 경험축적이 용이한 고소득계층의 자녀에게 유리하다는 비판 상존

○ 미국대학에서 성적뿐만이 아니라 입학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던 입학사정관제의 초기 목적을 상기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회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교육소외층 우대)으로서 입학사정관제 운영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을 교육소외계층(사회적 배려자) 우대(적극적 차별), 지역균형을 위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인재선발전형 전형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추진과제 1 : 고른기회전형 확대, 적극적 차별정책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용**

○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의 점진적인 확대 권장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배려가 필요한 집단 중 잠재역량 뛰어난 학생 선발

○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을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전환

□ **추진과제 2 : 지역인재전형 확대, 적극적 차별정책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용**

○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선발전형의 점진적인 확대 권장

○ 전체 국립대학교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예컨대, 50%)을 지역균형선발(서울대), 해당지역우선선발, 계층균형선발 방식으로 선발

- 전형방식은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적용

- 단 사립대가 없는 교육대는 미적용

○ 사립대학에도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을 적용한 지역인재전형 확대 권장

□ **추진과제 3 : 입학 사전·사후 지원 확대**

○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입학 사전·사후 지원 확대

○ 학생의 다양한 잠재역량 확인을 위한 입학 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대학 입학 이후 맞춤형 학습지원 확대로 학생 성장 지원 : 학습멘토링 지원

2.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1) 진로기반 진학지도 내실화

○ 진로전략, 진학전략, 학습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과 지도 필요

- 생애진로비전에 근거한 맞춤형 진학전략, 학습전략 지도 노력

○ 학생, 학부모의 진로진학 관련 의사결정과 준비시기를 반영하여 진로진학 지도 매뉴얼 전면 수정

○ 진로특성(희망)과 진로진학 역량 파악

- 심리, 성격, 진로성향 파악 : 각종 검사와 상담 활용, 담임과 협력하여 개별 상담

-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비교과, 논술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 비교적 객관적인 검사와 학생의 희망, 흥미, 의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 학생의 진로활동 지원 확대, 진로연계 포트폴리오, 학교 내 활동 근거 마련

○ 진로특성(희망)과 진로진학 역량에 기초한 전공과 진학대학 설정 지원

- 진로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진학목표대학 설정

-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비교과, 논술능력을 고려하여 집중전형방법 설정

-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고3 진학담당교사와의 철저한 협력 필요

2) 상설독립기구 설치

○ 정권 교체와 함께 계속 바뀌는 대입정책으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 매우 높음. 문제가 있더라도 차라리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여론 다수

○ 대입정책 단일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변화를 동시에 보장하여 본래의 정책적 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관리할 범국가적·초당파적 독립기구의 설치 필요

- 교육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간 이해 첨예하게 대립. 정파간 지지 견해 다름.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의해 교육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범국가적, 초당파적인 독립기구 필요

- 더 이상 교육문제는 교육제도만의 변화로는 해결할 수 없음. 사회, 경제, 복지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 마련

○ 새로운 교육정책의 도입과 실행에는 최소 10~20년의 큰 그림이 요구됨. 따라서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입맛으로 교육정책을 논한다면 실패 반복될 것

- 무엇보다 대입제도는 중등교육의 결과를 잘 반영해야 하는데, 중등교육과 대입전형이 잘 연계되려면 교육과정 및 교사연수가 대입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거나 선행

- 또한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선은 제도변경 이전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제도 개선 필요

3) 능력중심사회 구축

○ 직무능력평가 기반 고용제도 확립

- 학벌 대신 직무능력평가 결과 반영 추진

- 분야별 직무능력평가 도입

- 직무능력위주 승진체제 도입

○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제 확립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2011년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근로자 모집, 채용, 임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금지, 모집, 채용 상 합리적 기준 이상의 학력 요구 금지, 국가자격 검정시험에서 학력 관계된 응시자격 제한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학력차별당한 사람구제 등을 규정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각각 발의했으나 입법에는 실패

참고문헌

강익수 (2009).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보도자료(2004.10.28.).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2008 대통령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9.6.3.).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 방안” (2010.1.26.).

교육부 (2013).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 (2013.8.27.).

교육부 (2013.). “15~16학년도 대입제도(교육부) 및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확정: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의견수렴 결과 반영” (2013.9.24.).

교육부 (2015).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5.01.22.).

김경근 (2004).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랑스의 대학 문호개방”. 정진상 외, 『대학서열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미란 (2009). “해외대학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시사점: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아동·청소년 생활패턴과 핵심역량 세미나 자료집』 (pp.111-150). 서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김미란 (2009). “일본의 대학 자율화와 대학입시: 도쿄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2), 65-85.

김미란·정광희·이호섭 (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Ⅳ)-2: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숙·강영혜·박소영·이희숙·황여정 (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상길 (2010).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충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세직 (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53(1), 3-20.
김영석 (2004). “미국의 대입제도: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정책을 중심으로”. 정진상 외, 『대학서열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영철 (2013).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철 (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정빈 (2008). “영국과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연구』, 12(1), 25-45.
김혜성 (2006).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수경 (2009). “미국 TRIO 프로그램이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정책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2), 79-105.
류성창 외 (2012). “역량중심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문수 외 (2014).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분석과 시사점: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박부권 (2005). “외국의 국립(주립)대학 지배체제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3(4), 31-55.
박선형·박남기 (2008). “일본의 대학입시와 입학사정관제도”. 『비교교육연구』, 18(3), 207-230.
박승렬 (2005). 『대학 학생선발제도의 변화요인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정 이광현 강성국 (2005).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희진·정문숙·정수정·배수옥·서원주 (2012). “주요국들의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방법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 한국교육개발원.
신현석·안선회 외 (2011).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심정민 (2013).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선회 (2013). “교육부 대입제도 개선안 쟁점 분석 및 수정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사)좋은학교운동연합·한선재단 교육연구소 공동주최 2013 교육부 대입제도 개선안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입시정책 계획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안선회 (2013).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 『교육문제연구』, 26(4), 45-78.

안선회 (2009). “좌우를 넘어선 교육개혁”. 『황해문화』, 통권63호, 244-261.

안정희 (2014). “대학입학전형제도와 국가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비교분석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 제언”. 『입학전형과 평가』, 제4호, 97-124.

양성관·정일환 (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윤종혁 (2007). “최근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변화”. 성기선 외, 『대학입시와 교육제도의 스펙트럼』. 서울: 학지사.

이돈희 (2014). “미래교육의 구상”. 『제67차 KEDI 교육정책포럼 ‘초·중등교육의 발전과제’ 자료집』 (pp.1-15). 서울: 중앙우체국.

이성호 (2005). “미국 대학의 주요 특징과 당면과제: 다양성, 자율성, 실용성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6(3), p.161-181.

이병곤 (2007). “영국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최근 동향”. 성기선 외, 『대학입시와 교육제도의 스펙트럼』. 서울: 학지사.

이종각 (2013). 『Basic+ 교육사회학』. 서울: 태영출판사.

이혜정 (2014).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파주: 다산에듀.

장재천 (2009).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정광희·김홍원·이종재·정진곤·박소영·남수경·조덕주·이희숙 (2005). “고교교육정상화와 대학적격자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방안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김미란·박병영 (2009). “일본사례를 통해 본 입학사정관제 운영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박병영·조덕주·한혜정·이관희·윤나경 (2010).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Ⅶ):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델 및 운영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정운찬 (2014). “창조형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혁신”.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교육개혁 심포지엄 자료집 (pp.1-25)』. 12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정원규 (2011).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사회와철학』, 21, 108-139.

정일용 (2013). 『미국·프랑스·영국 교육제도: 그들이 걸어온 교육의 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진곤 (2004). “미국의 대입제도와 시사점”. 『KEDI 8년 연구 제4차 세미나 ‘외국의 대입제도’ 자료집』. 11월 30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진곤 (2005).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 Berkeley, Stanford와 Washington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8(2), 149-171.
정진상 (2007).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왜 대입 문제의 대안인가”. 『중등우리교육』, 통권 제176호, 73-76.
조영달 (2011). “한국교육의 불평등과 교육정의”. 황경식 외, 『공정과 정의사회』.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조호정 외 (2012).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 40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상덕 외 (2012).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2014). “20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보도자료(2014.2.27.).
한국교육개발원 (2009).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과 특징: UC버클리·스탠포드·와싱톤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각국의 대학입학시험 체제 및 대학 전형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03).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 계획”.
함석동 (2004). “영국과 독일의 대입제도와 시사점”. 『KEDI 8년 연구 제4차 세미나 ‘외국의 대입제도’ 자료집』. 11월 30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OPAS Summit(2005). PASS(THE PROFICIENCY-BASED ADMISSIONS SYSTEM). <http://opas.ous.edu/Materials/7-5%20PASS.pdf>
Rigol, G, W.(2003). Admissions Decision Making Models-How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Select Undergraduate Stduents. The College Board. 김미란 외(2009)에서 재인용.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9). A Profile of the Federal TRIO Programs and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Program.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Federal TRIO Programs. 남수경(2009)에서 재인용.

고소득층 사교육비, 저소득층의 16.6배. (2015.1.7.). 서울경제, A29.
空교육 만드는 수능 … 땜질처방 금지!. (2014.12.15.). 동아일보, A10.
공교육 확 바꿔 고교만 마치면 일할 수 있게. (2014.12.1.) 동아일보, A8.
대입 수능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2014.12.3.). 중앙일보, A33.
‘물수능’ 혼란,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2014.12.3.). 중앙일보, A34.

사고력 묻던 수능, 과목수 늘어나며 암기시험 전락. (2014.11.26.). 중앙일보, A12.
수능 영어 절대평가, 사교육도 못 잡고 세계화도 역행할 판. (2014.12.26.). 동아일보, A31.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효과와 한계. (2014.9.4.). 중앙일보, A29.
새로운 교육개혁, 시민교육에서 찾자. (2015.1.2.). 중앙일보, A29.
한국경제 숨겨진 뇌관 '에듀푸어' (2015.1.20.). 주간경향, 통권 1110호, 18-19.
한국 청소년 수학-과학, 50개국 중 최상위인데… 흥미-자신감은 최하위 수준, 왜?. (2012.12.12.). 동아일보, A14.